

第293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8月20日(金)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인사청문회

審査된案件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인사청문회 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인사청문회

○위원장 김성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요청해 왔고,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서는 오늘의 청문회를 통하여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절차는 먼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이 있는 후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날인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0년 8월 20일

공직후보자 박재완

○위원장 김성순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은 식견과 뜨거운 열정으로 고용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후보자로 지명받게 되어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부·학계·정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교훈

을 거울삼아 더 낮은 자세와 더 뜨거운 가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고용노동 분야의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 문제는 중요하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입니다. 우리는 2년 전 밀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를 비교적 빨리, 그리고 순조롭게 극복해 오고 있으며, 고용상황도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높은 청년실업률, 정체상태의 고용률, 구직난과 구인난이 혼재하는 엇박자의 인력수급, 함께 지키기가 벅찬 일과 가정 등 구조적인 문제점은 여전합니다.

지난 달 고용노동부 출범은 그저 이름만 그럴 듯하게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근원적인 난제에 본격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일감과 일거리’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어 ‘일꾼과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 심지어 일자리 찾기를 일시적으로 포기한 사람까지도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고용노동정책의 지평도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근로빈곤층 등이 취업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고용지원대책을 세우고, 이들이 교육·복지·보육 분야 프로그램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복지함정’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하는 곳과 고용형태는 달라도 기본권익은 충실히 보호받고,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사 모

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 진로상담, 취업알선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진력하겠습니다. 법치와 자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노사문제는 법의 테두리에서,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해 노사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비움은 채움의 전제이고, 나눔은 키움의 첩경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의 입장을 감안하는 여유, 최선을 고집하기보다 차선을 수용하는 예지가 절실합니다. 노사가 20%의 차이점에 매달리지 않고 80%의 공통분모를 잘 가꾸어 동심원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3년이나 미루다가 합의된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제도의 연착륙에 힘쓰겠습니다. 노사협력이 단순히 성과를 나누는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파이를 키워서 일자리 창출의 보고,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과 정규직 노사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그리고 국민경제에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도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가 개별 사업주와 노조 차원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나아가 정규직-비정규직 차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 총괄부처로 자리 매겨진 고용노동부의 앞길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꾼을 키우면서 다른 한편 일자리도 늘리고 찾아 줘야 합니다. 일감을 만드는 경제부처, 미래 일꾼을 키우는 교육과학기술부, 가난한 일꾼을 도와주는 보건복지부 등과의 팀워크도 긴요합니다. 한층 넓어지고 더 어려워진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노동시장과 법치와 자치에 기초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국민의 일할 수 있는 권리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움을 받았고 크나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성과 보은의 심경으로 기꺼이 가시발길을 걷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늘 되돌아보며 귀담아듣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때로는 물을 거슬러 노를 젓는 뜨거운 가슴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박재완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지난번 회의에서 첫 번째 질의시간을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5분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생방송되고 위원님들의 질의 기회를 골고루 갖기 위해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로 첫 번째 질의를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리지만 또 저희 환노위에서 보면 노동부는 굉장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할 일은 많고 쟁점도 많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환노위에서 있어 보면 노동부가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면서도 그 일들이 서로 충돌하고 상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노동부에 직접 근무하신 경험은 없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없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렇지만 우리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들을 다 다루셨기 때문에 노동부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또 이해하고 계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좀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제가 환노위에 오래 있으면서 우리 노동부가 그동안에 추구해 왔던 정책 방향들 가운데서 상당히 충돌하는 것들, 그래서 말로는 이렇게저렇게 잘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늘 모호한 일들 그것부터 먼저 좀 여쭙 보고 싶은데요, 그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지……

사전에 제가 후보자님 말씀 들은 것 중에서 장관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거,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 노사 선진화 과제를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그 반대편에 우리가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60 넘어서 70, 80까지도 일자리를 갖고 수입을 얻지 않으면 굉장히 비참한 노후를 보내야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려 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노령화된 세대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해 주고 수입을 얻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임금피크제라든지 정년연장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를 때가 돼서 빨리빨리 비워 줘야 자기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더 오랫동안 일하게 보장을 해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 청년들이 볼 때는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과 노년층 고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충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서로 대체 관계에는 있지 않다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취업 사정이 일부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컨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한쪽의 고용이 늘게 되면 다른 쪽의 고용이 줄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양자 중에서 정부로서는 청년층만 특별히 배려할 수도 없고 고령층만 특별

히 배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양쪽이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 예컨대 지금 그런 상생할 수 있는……

○**조해진 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상생하려면 연봉급 체계로 되어 있는 임금 체계 같은 것이 좀 직무성과급 체계로 개편이 된다는지 하는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청년층도 늘어나고 노령층도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해진 위원** 같은 정부 안에서,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 공기업들한테 구조조정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방만한 조직 잘라내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정리해고도 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경영될 수 있다, 불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다, 그렇게 기재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그런 기관들한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한테 의무적으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 취직시켜라 라고 서로 또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두 개가 일견 엇박자처럼 보이지만 저는 조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는 국민의 세금 또는 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균살을 빼고 방만한 경영을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은 몸집을 줄이고 민간 쪽으로 기능을 옮기거나 하는 것이 전체적인 생산성 효율도 올려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청년 실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컨대 지난 6월 30일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할 때 몇 가지 조건을 부과했는데 정년연장 트랙에 들어가는 근로자의 수보다 적어도 신규 채용하는 청년취업자의 수가 많도록 하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다시 요약해 말씀을 올리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청년취업자가 꼭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올리고,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경제성장을 하는데 그것을 이끌어 가는 주력이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GNP의 한 80% 가량을 대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거꾸로 한 10, 20%밖에 대기업들이 못 만들어 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들이 다 만들어 내거든요.

성장을 하려면 대기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성장이 일자리를 못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성장으로 가는 이런 모순, 경제성장 구조의 모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국제 수준 또는 평균과 근접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대기업에 정규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이게 전체 근로자의 한 7% 정도 됩니다. 그 특정 분야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그쪽 분야가 일종의 과보호를 좀 받고 있다 할까요 그래서 임금 수준도 아주 높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유연성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을 기피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편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사내하청이라든지 이런 쪽을 자꾸 선호하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노조 정규직 이런 등의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근로자가 임금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정규직에 과보호되어 있는 것을 좀 완화하는, 유연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하면 대기업도 신규채용을 상당히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해진 위원** 사내하청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여쭙어 보고 싶은데 대법원이 대기업에서 사내하청으로 2년간 고용했으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쪽으로 도와주겠다는 대법원의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는지 또는 반대로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비정규직 형태로 사내하청을 유지하는 것은 임금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2년 채우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어서 임

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 2년이 되기 전에 사내하청 계약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하청회사에다가 2년 되기 전에 그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근로자가 채 2년도, 사내하청으로라도 2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가 2년도 일을 못 하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 또는 하청계약이 해제되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오히려 고용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요, 대법원 판결이 일반적으로 사내하청 전반에 관해서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고 특정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일 라인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실상 사용자의 작업 지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은 하청 뭐 도급으로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하청이 전반적으로 불법이라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양한 관행과 현장의 여건 등을 살펴봐야 불법성 그리고 정규직으로서의 고용의무 등을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해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청문회 이후에 부임하시게 되면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아서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 판결이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특별한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고용부에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 실태조사를 거쳐서 우선 다양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이번 판결에 해당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그런 명약관화한 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등을 강력히 권장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민주당의 이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주요 공직자로서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기강을 잡아나아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러한 도덕성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고혈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군복무를 1년 1개월만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1976년 당시 대학교 4학년이던 후보자의 신체가 키는 172cm, 몸무게가 62kg으로 외형상 고혈압이 있었다 하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중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보면 취미와 특기가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적십자사 헌혈 기록 보면 세 번이나 헌혈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때 알았습니다, 신체검사를 할 때.

○이미경 위원 신체검사 할 때 아셨다?

통상 혈압이 그때 160으로 되어 있거든요. 160이 넘으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없습니다만 병무청에서 당시 병중 판정 기준이 혈압이 160이면 보충역 근무를 할 수 있다, 방위병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지요. 160이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데 약은 복용하지 않고 병무청에서는 그러한 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지요.

본인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병무청에서는 160이면 보충역으로서 방위병 근무를 할 수…… 군사훈련도 받을 수 있다고 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견해는 제가 그렇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160이 되

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을 먹어야지 됩니다. 제가 의사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일단 보충역으로 빠졌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한 사실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제가 건강검진 그쪽을 확인했을 때도 약을 복용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의 병역에 대해서 그 자료를, ‘고혈압이다’라고 되어 있는 그 자료를 2시까지 제출을 다시 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혹시 병역 기피가 아닌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위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국가가 부여한 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기피라는 말 씀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라면 저와 같은 질병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 모두가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논리의 비약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 올리면 고혈압 약을 복용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여러, 저와 관련된 여러 증인들 또 제가 다른 질병 등으로 유사한 사유와 관련된 것은 허락해 주신다면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우선 2시까지는 병역을 고혈압 때문에 받았다 하는 명확한 자료와 지금 하실 수 있는 내용도, 의과적인 문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게 34년 전이라서 자료가 없습니다. 제출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경 위원** 제가 다른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보충 다시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92년·93년 논문의 이중 게재 문제로 KBS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KBS 시사 기획 프로그램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후보자의 고등학교 친구인 이화섭 당시 보도제작국장이 직권으로 메인뉴스에서 후보자의 이중 게재 내용을 빠지게 했습니다.

논문 이중게재 문제로 이화섭 보도제작국장하고 의논하거나 전화한 적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중학교 동기고요, 고등학교 동기는 아닙니다. 이화섭 국장은 인품이 훌륭하고 깐깐하기 때문에 또 저도 청와대 수석으로서 한 점 의혹이 없는 이 사안을 두고 제가 부탁을 할 그런 처지도 아니고, 저희가 그런 정도의 금도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이 뉴스를 만든 기자는 당시에 이화섭 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빼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논문표절이나 이중 게재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경우가 많은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논문 이중 게재로 낙마한 인사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잣대가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학자 출신으로 어떻게 생각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서면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중 게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당시 논문은 영문 논문과 국문 논문에 각각 게재가 됐는데 이 두 논문을 작성할 때 저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중 게재를 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 두 번째 두 논문이 학술적인 기여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영문의 각주는 열일곱 개고 국문의 각주는 마흔여섯 개라든지, 이론모형의 수식이나 계량 검증에 사용된 특성방정식 숫자가 다르다……

○**이미경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이기는 한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리고 설사 동일한 논문이라 하더라도 재정학회지의 논문 기고요령과 편집 지침에는 이중 언어로 된 논문은 출간을 허용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학회장의 확

인을 받아서 서면답변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 이야기……

지금 답변에서 ‘중복 게재를 당시에는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번역 출간도 허용했고, 더구나 이중 게재 논문과 관련해서 연구비를 받거나 업적으로 활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내 오셨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낙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금 다르게 잣대가 적용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우선 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참여정부 때 낙마한 분하고 저하고는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미경 위원 다시 나중에 따져 볼 수 있는 겁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인데요.

96년도 일원동에서 전세를 살면서 명일동에 집을 사고 명일동 집에 전입신고만 한 채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언론을 통해서는 ‘노모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 놓은 걸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게 진의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건데 그 추진되던 계획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정이 되지 못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악의적으로……

○이미경 위원 어쨌거나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인 건 사실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살지 않으면서 옮겨 놓은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을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 학교 배정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또는 탈세라든지 또는 금융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는 그런 일체의 그거는 없었고요.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전형적인 무슨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의 설명은 하고 있는데요, 98년 후보자가 성균관대학교 교수 하던 시절에 문화일보 오피니언이라는 칼럼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도덕성 문제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각료라면 적어도 위장

전입 등 위법사실은 없어야 국민에게 개혁을 주문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 위장전입……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투기라든지 자녀 학교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잘못됐지마는 그밖에도 위법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위장전입이라는 의도 자체가 허위 사실 또는 악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당시 저희 자녀들은 강남에서 학교를 다니기를 원했고……

○이미경 위원 제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희 부부는 좀 더 큰 넓은 평수의 아파트,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차이가……

○이미경 위원 그거는 구구한 설명이고요, 어쨌든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위장전입인가 하는 건 더 따져 볼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마는 주민등록법 위반을 했는데 이렇게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장전입을 했던 후보가 이번 인사청문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부적절한 발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일보에 기고했던 98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후보들 후보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98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경 위원 본인만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다른 후보에 대한 의견상 언론에 알려진 것하고 그 후보자의 속속들이 그때 해명 내용, 있었던 일까지 다 살펴봐서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다른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다음에 이범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범관 위원** 노동부가 노동청으로부터 부로 승격된 지 29년 만에 고용노동부로 바뀐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고용 문제를 노동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는 의미에서 잘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장관후보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고용 문제라는 것은 노동부 혼자만 해결하기 어려운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동안 행정관료, 학자, 국회의원 또 청와대 정무수석 등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경험과 경륜을 쌓으셨기 때문에 새로 출발한 고용노동부를 이끌어가는 데 대해서 각계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노사관계와 관련된 가장 큰 쟁점으로 나와 있는 타임오프제 또 청년실업 해결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선 이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계신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이달 초에 발표가 됐으니까 7월 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865곳이 타임오프제도를 들여오기로 노사 간에 합의가 돼서 그중에서 96.2%에 해당하는 832곳의 기업체에서는 타임오프제 기준에 따라서 노사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다만 33개소인 3.8%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반대입장에 있는 노동계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제도를 반대해 온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나 이런 데서는 소속 사업장 455곳 가운데 220곳이 타임오프제를 따르고 있다, 그다음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70여 개 사업장 가운데 110개가 전임자 처

우 등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 타임오프제를 안 따르고 사실상 현행 유지의 의견 접근을 이루었고, 110곳 중에 타임오프를 준수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한 곳이 94곳이고 또 중요한 게 이면합의를 한 곳이 6곳이 있고 아직도 논의 중인 곳이 10곳이다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발표한 노동계가 다른 입장에서 이런 실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우선 고용노동부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또 노동계 등이 각각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대상 범위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최근 현재, 8월 8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곳 가운데 68%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 그중에 96.4%가 면제 한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시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점차 안정이 되어 가는, 물론 일부 사업장, 금속노조사업장 등에서 여전히 이견 차가 커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츰 안정되어 가는 것으로 듣고 있고, 따라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어느 정도 교섭이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좀더 파악을 해서 이면합의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이범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금속노조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금속노조가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던 말이에요. 170여 개 사업장 가운데 110개가 지금 타임오프제를 안 따르도록 노사 간에 합의가 됐다 또 이면합의한 곳도 6곳 있고 아직 해결 안 된 게 10곳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아직 모르고 계시군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저는 아직……

○**이범관 위원** 이렇게 되면 정부가 발표한 것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시다.

○**이범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 지금 타임오프제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첨예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정인데 사측 입장에서 보면 당장 파업이나 사업의 차질을 우려해 가지고 노조 측과 이면 합의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예, 그것은 그럴, 장관후보자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임금체제도 지금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법관 위원** 이런 것이 다 여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면 합의 해 놓고 안 했다, 우리는 제대로 한다, 그리고 정부의 힘을 빌려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사측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노조 측에서는 사측을 압박해서 이면 합의를 통해서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이럴 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참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실행이 되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제대로 실행돼야 되는 것이 정책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이런 불법·위법·탈법 행위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다뤄 나가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법관 위원** 엄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엄단을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이 되면 의법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 13년 동안이나 미루다가 어렵사리 합의된 제도가 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 상황이 참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장관후보자님도 참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면 합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지금 몇 군데, 언론에 보도된 곳이 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가 보도된 것은 한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군데 정도는 관계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 셧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니요, 이면 합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게 실질적인 실체를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이면 합의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확인되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법관 위원** 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쪽에 우리의 실정이 있고 여태까지의 관례와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불법·탈법 행위가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 놓은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법관 위원** 장관후보자님께서 그 매뉴얼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한 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마간산 식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법관 위원** 매뉴얼을 만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실태를 제대로, 실정을 잘 모르고 너무 경직되게 기준을 정해 놓고 보다 보니까 일선에서 이것을 적용해 나가는 데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직장에도 전임자를 몇 명으로 줄여라, 그렇지만 그 기업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줄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업이 한 20군데 지사를 두고 있다고 그러면 줄여지겠습니까?

그러한 하나의 예를 내가 들어 드린 건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제대로 실정에 맞지 않은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마찰이 생기지 않

느냐, 그래서 저는 매뉴얼을 유연성 있게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우려에 대해서 듣고 있고요. 다만 매뉴얼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행해 놓고 또 매뉴얼을 고친다고 한다면 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에 맞추어 가지고 이미 타결한 곳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취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매뉴얼에 관한 상세한 문제점 등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법관 위원** 잘 좀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잘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 청문회가 끝나고 장관 임명장을 받으면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구미에 있는 KEC라고 반도체 회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언제 지명을 받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8월 8일 날 그 지명을……

○**이찬열 위원** 8월 8일 날 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그러면 벌써 한 12일 지났는데 그동안에 노동 현장에 한 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후보자 신분으로서 노동 현장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도 다니지는 못 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탁상행정으로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답변하시면서, 지금 어느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이찬열 위원** 휴직 상태이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거기에서 답변할 때 ‘정치계에 입문하는 것이 잠시 외도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제가 2004년 비례대표로 입문할 때, 그때 소회를 홈페이지에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지역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교수직 때문에 잠깐 외도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정운찬 총리도 총리 내정되면서 교수직 사퇴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님 같은 분들 교수직 하다가 국회의원 하면서 18대에서 다 사퇴하셨고 또 지금은 안 하시는 김종률 의원도 교수직을 사퇴하셨고…… 그러면 더군다나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제 정무직으로 계신데 지금 시점에서는 교수직을 사퇴해야 될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 내지는 고려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래서 늘 제가 학교하고 교수진하고 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찬열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죄송한 마음은 학교에다 갖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가져야지요, 특히 노동자들한테. 노동 정책에 정말 전념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장관께서, 장관이 되실 분께서, 후보자께서, 학교와 학생들한테 죄송하기 전에 이미 국민과 노동자들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 전공이 정책학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를 굳이 변명같이 드리면, 예를 보면 교수와 공무원, 또 연구기관, 기업체 등의 부문 간에 인력의 교류라든지 파견 그런 장벽이 다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지금 시간이……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순공정적인 기능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이찬열 위원** 본 위원 뜻은 그게 지금 현실에 있는, 또 나중에 능력 있고 실력 있으시니까 거기에 또 시험 봐서 공개경쟁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지적의 취지를 유념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한 번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산은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많이 적으신데 나타난 대로 집은 한 채뿐이 없으십니까, 사는 곳?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항상 한 채뿐이었습니다.

○**이찬열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장관 정도 하시는 분들은 집 두 채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은 타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 노동자들, 국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그런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직접 말씀드리기보다 지난 30년, 하여튼 제가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집을 두 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이찬열 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후보자 입장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자가 됩니까?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노동자가 과연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일을 통해서 한편 생활을 영위하고 또 다른 한편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으며 자아를 실현해 가는 사람으로 외람되나마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렇게 행복을 좀 추구해야 되는데 현 정부하에서는 노동자들의 행복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 대개의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사용자들한테 많이 얽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관이 되시면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반노동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재완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느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노동부장관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과연 이 노동부장관직을 내가 받아들여서 수행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고민한 적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발언의 취지에 말씀을 올리면, 저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고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보다도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올린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와 같은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지난 2년 전과 같은 절박한 경제 위기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완……

○**이찬열 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지요. 노동부장관이 아닐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노동부장관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똑같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 저는 노동부장관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기조도 좀 바꿔주시고요.

노동자들 약합니다. 정부도 해야 되고 일반 기업에서도 일자리 창출 해 주어야 되고, 기회를 계속 줘도 노동자들은 항상 목마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

○**이찬열 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노동자가 행복한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후보자께서 좀더 생각이 발전적으로 바뀌어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회의원 시절에 낙하산 인사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리고 2006년 4월 4일 보도자료까지 내시면서 282명이 전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다, 그런데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하시면서 MB 정부 초기에 166명의 외부에서 낙하산 인사라고 알려진 분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종전 정부하고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

○**이찬열 위원** 아니, 비교가 아니고 일단 166명이 객관적으로 낙하산 인사라고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낙하산 인사한 명도 없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민간 금융기관 출신, 기업 출신 등등 전문성을 가진 분을 제가 담당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부문에서는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이찬열 위원** 그래서 후보자께서 영입하신 분들은 낙하산이 아니고 다른 정부에서 한 것은 낙하산이다, 이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정보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거기에서 나온 게 56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지금 충원이 됐습니까? 얼마나 충원할 계획이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저께 제가 보고받기로 노사가 한 317명 정도를 충원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상 없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감사합니다.

○**이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 장관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고용노동부의 많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겠습니다.

17대 국회의원으로서는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7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여야 막론하고 박재완 의원, 그 당시 의원으로서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의원으로서의 현장성 또는 진정성 또 청와대에서는 유연성 이런 부분에 많은 평가를 받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등록법 위반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서 어떤 법을 위반한 것과 악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것은 다른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 갈등이 많이 만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주민등록 상황이라든지 또는 재산 상황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원인 같은 것을 저도 기억을 못 하고, 죽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정리가 늦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러나 법상, 제도상으로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예컨대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로 지내야 되는데 이때 주민등록 같은 상황을 실제 현실적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위반을 하고 계신 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등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선 위원** 법을 준수하는 데는 누구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잣대도 준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직자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악의적인 것과 과실에 관한 판단은 각각 좀 따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징병 신체검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각 제도라든가 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정선 위원 당시 이런 징병검사라든가 이런 판정을 내렸을 때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예를 들면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투입이 되어 판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의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혹 부풀리기 식의 의혹이 계속 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안 되고 또 각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어 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신체검사를 처음에 고향 어디 실내체육관인가에서 받았고요. 그때 제 병력을 보고 군의관이 아무래도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뒤인지 두 달 뒤인지 제가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제가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제가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시다.

○이정선 위원 예, 나온 결과가 저희 방에 지금 보충역으로 해서 4급과 2C 3을중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판정한 그런 기준을 어떤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의혹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정책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박재완 장관 후보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에게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질문이…… 노동자?

○이정선 위원 노동의 의미가,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노동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기도 하고 또 자기만족과 긍지를 가지면서 자아를 실현해 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정선 위원 결국은 그 삶의 질과 만족도, 행복지수와 연결될 수 있는 거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정선 위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로 근근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앞으로…… 아까 전에 어떤 위원님의 질의에도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령화와 청년의 실업 문제,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적인 어떤 상황…… 노령화에 있어서는 사실 근로의 여건이 안 되는 부분 또 의료적인 측면 또는 청년 같은 경우는 사회, 우리 국가의 미래 비전을 갖고 가야 될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되고 현장의 소리들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노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위원님의 질의하신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정선 위원 다음에 타임오프제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관심도 많고 또 노동계에서 새로운 장관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타임오프제에 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 보면 경총 따로, 노총 따로, 노동부 따로, 이렇게 지침이 각각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과연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느냐, 물론 법을 준수하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노정이 합의를 하는 내용 그것이 원칙이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정선 위원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각각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임금협약이라든가 단체협약의 시기가 따로 도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조율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현장에서 그야말로 참 천차만별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현실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최대한 노사 자율의 교섭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그 만든 매뉴얼에 대한 지적

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하면 상세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만들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래서 또한 현장에서는 이번에 노동부의 부칙을 고시하게 했습니다. 그 부칙을 보면 ‘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서 지역적 분포라든가 교대제 근무라든가 이런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시행하다가 어려움이라든가 혼란이 그 현장과 맞지 않으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에 붙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지금 아직 교섭이……

○이정선 위원 진행 중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진행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부칙에 의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교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정선 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오랫동안 미루다가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우선 제도 정착에 더 무게를 뒀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반기 내내 제도 정착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저희가 좀더 문제를 파악한 뒤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선 위원 법의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의 제도가 가장 실효성이 있는 법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유념하시고, 잘 지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꼭 그렇게 하겠

습니다.

○이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玲愛 委員 이영애입니다.

우선 후보자에게 남녀고용평등제도와 관련된 후보자의 철학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제도는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인격체라는 평등사상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동의합니다.

○李玲愛 委員 그런데 후보자의 과거의 활동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가 과연 여성을 대등한 인격체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17대 국회의원 재직 시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6년 4월 28일에 의안 제4330호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李玲愛 委員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난자 채취를 허용하고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 난자 제공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난자 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李玲愛 委員 또 후보자께서 2006년 4월 28일 의안 제4331호로서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李玲愛 委員 그 법률안의 내용 중에는 대리모 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李玲愛 委員 그런데 후보자께서 대표발의하신 위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후보자는 여성의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고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에게 난자 채취를 허용한다는 것은 여성의 난자를 물건으로 취급하여 과학기술 연구재료로 공급하는 것이고 여성을 과학기술 연구재료를 공급하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난자 채취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제가 당시에 성행하던, 음성적으로 성행하던 난자매매와 그리고 대리모시술 등등에 대해서 연일 폭로를 했습니다. 그걸 찾아가고 폭로를 하고, 심층연구를 하고 담당자들을 면담해 본 결과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에 사용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우리나라 부부 중에서 약 7%가 불임 상태, 불임이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불임 상태에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대리모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대리모시술은 입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그 불임부부들의 고통을 한편 들어주면서도 또 대리모 문제를 해결하는 절충안으로 마련한 것이고요.

제가 참고로 다른 법안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도 14일간 유급휴가를 주는 법안 같은 것도 제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너무 폄하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李玲愛 委員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에게 난자를 제공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도화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고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난자 채취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어 봤는데 답변을 안 하시네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것 굉장히 위험하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보시면 채취할 수 있는 빈도라든지 그 시기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또 그 여성의 건강 검진을 의무화한다든지 담당의사의 소견을 붙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제가 마련했었습니다.

○李玲愛 委員 난자 채취 자체가 위험한데 그것을, 빈도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이 무슨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그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배란 유도를 통한 난자 채취 과정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과도한 양의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 합병증으로 복수나 흉수로 인한 복통이나 호흡 곤란을 야기하고 채취 과정에서 출혈 및 감염의 위험이 동반되어 심각한 경우 불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위험을 알고도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기관에게 난자 채취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올리면,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폭로하고 했던 게, 보도자료가 10여 건이 있었습니다.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자 채취를 통한 체세포 배아 복제 연구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종교계 간에도 의견이 달랐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었습니다. 입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절충안으로 제가 엄격한 여성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제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하되 여성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넣었던 것입니다.

○李玲愛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1시간 이상 얘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고요. 저는 단지 후보자의 인간관 내지 평등에 대한 사상 이런 것을 좀 여쭙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난자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난자매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서 인간 생명의 원천인 난자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일본,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난자 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가 지급이 허용된 미국에서는 여대생을 상대로 한 난자 제공 유인 광고가 대학신문에 게재되고 일류 대학 여대생일수록 또 미인일수록 제공의 대가가 높다고 합니다. 대학등록금이 부족하거나 크레딧 카드 채무가 많은 여대생들이 이에 응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 현상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리모 제도를 허용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파괴하는 동시에 출산을 못하는 여성을 확대하고 대리모가 되는 여성을 출산

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고입니다.

여성에 대하여 이런 인권 침해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여 고용평등정책을 시행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아마 다 보도자료로 해서 배포한 내용인 것 같고요.

대리모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대리 시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입법적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고.

또 난자 채취 및 시술에 관한 보상은 실비 보상에 국한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라든지 실제로 그 시술을 하면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하는 기간 동안의 근로손실 보상에 한정했기 때문에 난자 자체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 그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을 명확히 말씀을 올립니다. 실비 보상은 선진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난자 채취를 허용할 것이냐, 대리모를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서 허용하는 곳도 있다 하는 점을 부가로 말씀 올립니다.

○**李玲愛 委員** 고용노동부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에는 고용촉진을 위한 모성보호사업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침해적 사고를 가진 분이 어떻게 모성 보호에 대한 정책을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도 어머니이 계시고 누님이 두 분 계시고 딸이 있고 부인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남성 편향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밝혀 드리면서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를 더욱 유념을 해서 모성보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玲愛 委員**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국무위원이 되시면 국정전반에 걸친 정책을 취급하실 텐데 우선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생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부천소사 차명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국정기획수석 하시면서, 2년 넘게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2년 2개월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아, 2년 1개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명진 위원** 주로 세종시 수정안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기획하고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점은 했고요. 그건 사실은 제가 맡고 있던……

○**차명진 위원**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에는 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그 원인과 관련해 본인 이 생각하시기에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대국민 설득이라 할까요? 설명, 홍보 이런 것 등을 하지 못한 점도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일단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적 합의로 보아야 되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는 옳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을 설득하는데 국민을 이해시키는데 실패했다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차명진 위원** 국민 약속위반이라는 이유가 큰데……

자, 그러면 정책학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차명진 위원** 4대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초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야당과 일부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왜 이런 반대가 격렬하게 나오고 있고 혹시 뭐가 잘못됐는가, 대안은 뭐가 또 얘기해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4대강 살리기에 관해서는 논의 구도 자체가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되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너무 많이 흘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역시 홍보 같은 것을 잘못된 게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와서는 찬성여론이 반대여론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 그 점에 그나마 일말의 안도를 할 수 있겠고 저희들이 꾸준히 국민들께 다가가서 이 사업의 취지를 말씀을 올리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저는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역시 4대강 문제도 똑같은, 세종시 수정안을 실패했을 때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학을 하신 분인데 과연 정책이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 맞고 그 맞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잘 홍보하느냐 못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결정되느냐…… 정치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차명진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논의의 형성 과정에서 그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문제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신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의 과정에는 다 실패한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점 인정합니다.

○**차명진 위원** 세종시 수정안도 처음에 이게 약속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모른다, 잘못 알려졌다,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면 고쳐질 거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있었고 저는 4대강 살리기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을 위해서 혹시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도 4대 운하, 운하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해가 있는 것은 신뢰확보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정책학에서 그런 문제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시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중요시합니다.

○**차명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좌우간 이렇게입니다, 이 두 가지 큰 국가 역점사업에 대해서 실패하셨는데 국정기획수석 그만두신 지 한 달 만에 노동부장관 지금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

인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재산이나 4대 의무나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정책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데 과연 이 노동부장관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인사권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차명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답변하신 게 홍보 부족 정도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4대강사업은 저는 성공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냥 확신만 하시지 마시고요. 현재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실패했고 4대강 살리기가 상당히 저항이 있는데 이것이 왜 국민들에게 납득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말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노동부장관 직도 제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타임오프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차명진 위원** 근로시간면제제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쭙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의 전임자가 대부분 파견자인데 130여 명 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차명진 위원** 이분들이 2개월째 임금 못 받는 거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차명진 위원** 왜 그렇습니까? 대책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상급단체에 파견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합의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어떠한 지원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명진 위원** 후보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국정기획수석으로서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측면을 보지 못했던 측면을 지적했고 특히 신뢰를 보지 못한 측면을 지적했듯이 이 문제도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면 역시 또 신뢰의 부재로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급단체를 못 하게, 근로시간면제에 있어서 상급단체에 파견하는 것을 못 하게 한 게 아니라

요 단위사업장과의 연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단위사업장에서, 노조에서 대외사업위원 이래서 파견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하고 처음 출발부터 인식이 다르니까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들어 보세요. 예컨대 A기업은 32명이 전임자였다가 11명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국노총에 3명을 파견하고 있고요. B기업은 20명에서 14명, 2명을 파견하고 있고, C기업은 40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5명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었는데 대부분 상급단체 다시 말하면 한국노총에 파견된 사람은 그 노조의 아버지격인 사람이 근로시간 면제로 인해서 전임자가 절반 내지 3분의 1로 준 자기 단위사업장에다가 '내 TO도 하나 확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겠습니까, 장관님이 그 파견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얘기 못 하지요. 그렇지요? '내 자리 내놔라' 못 합니다, 전임자가 절반, 3분의 1로 잘라진 마당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고 하기로 했습니다, 전임 장관께서. 그런데 이것 지금 내팽개치고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법을 고치는 데도 이 부분을 상당히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생각이 이렇습니다. 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내놔서 실행하지 않으면 저는 저희가……

지금 이것이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인데 '상급단체 좋은 것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노조에서는 파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상급단체 파견 근로시간면제에 대해서 총량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법을, 시행령에 이것을 못 만들면 법으로라도 바꿔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차명진 위원** 왜 반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오랫동안 난상 끝에 합의를 해서 법령을 겨우 고쳤는데 이제 본격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또……

○**차명진 위원** 후보자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고치기 시작하면……

○**차명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야말로 아까

지적하신 신뢰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차명진 위원** 후보자님, 제가 고친 사람인데요 고친 사람의 취지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던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러니까 지적하신……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지적하신 그 취지를 잘 알겠고요. 그러나 지금 고쳐진 그 법에 따르면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업장별로 합의를 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을 드릴 수는, 지원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또 달리해서 별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다른 신뢰의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 말고 노사 간의 적절한 타협책이라 할까요, 연착륙을 위한 일시적인, 한시적인 절충안 같은 것 등을 노사 간에 잘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순** 또 보충시간 활용하시지요.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희덕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성균관대 교수 재직 때인 1998년도 문화일보라든지 중앙일보에 칼럼을 통해서 기고하신 적이 있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홍희덕 위원** 후보자는 2003년 한 번 성균관대 교수직을 휴직하고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네 차례 총 2316만 원을 아드님 대학교 등록금으로 국고학자금 대여를 받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홍희덕 위원** 물론 이자가 없고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2013년부터 상환 예정이고요.

후보자의 재산신고 상황을 보면 물론 상대적으로 좀 적기는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자 좀 줄여보겠다고 국고대여를 받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그때 휴직 상태였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시절에 연금을 사립학교교원연금공단에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연히 자격은 되었고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마는 등록금이 연 1000만 원 가까운데 그것을 마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07년에도 510만 원의 국고대여를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2007년 후보자 배우자께서 친언니에게 4000만 원을 빌려서 골프장 회원권을 6600만 원을 주고 2개나 매입을 했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은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한 푼도 갚지를 않았고요. 국민들 정서와는 많이 다릅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골프장 회원권을 2개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다음 해에 1개를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드님이 2010년 2월 달에 졸업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아들 졸업한 사실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즉시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3년 2월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늦추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신고절차가 있는 줄을 몰랐고요. 지금도 저는 이 순간까지도 몰랐습니니다마는……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신고를 또 했나, 뒤늦게라도 했는지까지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데 하여튼 형편이 닿는 대로 바로 갚으려고 합니다.

○**홍희덕 위원** 2009년 3월 대한민국 관보에 실린 재산변동신고에 의하면 아드님은 2007년 당시 1995만 5000원의 은행 채무가 있었고 2008년에 1536만 9000원을 갚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홍희덕 위원** 그러나 후보자는 그 이전까지 아들 채무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홍희덕 위원** 확인을 한번 하시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들 채무가 있는 줄을 제가 아마 생각을 못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홍희덕 위원** 후보자가 1998년 5월 13일자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이미경 민주당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했지만 이게 후보자가 쓴 글이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소한 일도 고위공직자에게는 준엄한 도덕성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후보자가 한 행위는 장관직을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글썸 대학생이던 아들의 채무를 제가 고의로 재산신고에 누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희덕 위원** 청와대 재직 시절에는 1260만 원 정도의 직급보조비를 받았습니니다. 물론 비과세였습니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비과세는 조세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민단체에서 여러 번 지적하고 있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엄격한 도덕적·법적 잣대를 중요시하는 후보자의 평소 기고문대로라면 지금이라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소득세를 낼 수 있는, 그게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니까, 잘 아시는 대로?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홍희덕 위원**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법령 규정에 의해서……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일반 노동자들은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다 과세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국무위원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이런 과세대상 근로

소득의 범위가 바로잡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2009년 총소득 즉 청와대 재직 시 급여, 골프 회원권 매도, 예금 입출액 등을 합하면 약 1억 60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약 2억 3700만 원입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7000만 원 가량 많습시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래서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요 2008년도 제가 재산신고 할 때 많이 줄었어요, 재산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할 때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식사하고 하는 데도 돈이 좀 들고……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개인적으로도 들어갔었고요……

○**홍희덕 위원**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리고 특히 그 해에는 저희가 주식을 팔고 수익 펀드에 아마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폭락해 가지고……

○**홍희덕 위원** 관련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주가가 폭락해 가지고……

○**홍희덕 위원** 이번 개각에서 위장전입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후보자가 1998년 3월 26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장전입 등 위법 사실은 없어야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개혁을 주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후보자들을 굳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자꾸만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제가 다 알지를 못해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아까 답변으로 같음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청와대로 가기 전에 2008년 2월 20일부터 약 9일 동안 남아 있던 4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그중 식비로만 15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 좀 비정상적인 지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그때 대통

령직인수위원회에 나가 가지고 근무할 기간인데요 그때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나 5시에 잠깐 잠질방 갔다가 1시간 눈 붙이고 나오고 했는데요 저와 함께 근무했던 파견된 공무원이 한 25명 쯤 됩니다.

○**홍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분들 식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드립니다.

○**홍희덕 위원** 아마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봤을 때 9일 동안 식비로 이렇게 나갔으니까 조금 많다고 했는데 한 20여 명 함께 하는 것들을 다 부담하셨더라면 해명이 되리라고 보고요.

후보자는 2009년 12월 11일 용인 수지 동천동에 있는 분양가 12억 2200만 원짜리 232㎡형 아파트 분양을 받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분양을 받은 것보다는 거기에 미분양 아파트로 남아 있어 가지고……

○**홍희덕 위원** 어쨌든요 계약금이 부족해서 후보자 처형에게 7800만 원까지 빌려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1억 2200만 원을 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홍희덕 위원** 후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는 작년에 총 3건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가 한산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대출금을 갚고 나면 약 5억 원이 부족합니다. 2010년 올해까지 대출받지도 않고 있다가 올해 6월 18일 우리 후보자님의 동서에게 매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6월 24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홍희덕 위원** 이곳은 고분양가 논란 속에 알선 수재혐의로 한나라당 임모 의원이 구속되어서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12억 원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때 저희들이 지금 재산등록상으로 나오는 저희 아파트 공시지가하고요 그 당시에 시가라고 하는 게 한 12억 정도 된다고 시세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좀더 남쪽으로 가면서 새 아파트로 한번 가 볼까 해서, 미분양 아파트니까 또 여러 가지 특혜도 있다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는 돈이 없

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빌려서 이렇게 냈던 겁니다마는, 금년 6월 말까지 팔리지가 않아서……

○**홍희덕 위원**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꼭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질문 좀 드릴게요.

동서께서 근무하시는 하나마이크론 2009년 22억, 2008년 96억 원, 연속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살고 있던 풍덕천동 아파트에는 3건의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분께서 총 12억 9500만 원에 동천동 아파트를 산 거지요. 후보자와 동서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2010년 6월 24일 동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도 해제됐더라고요. 동서가 아파트 구입 자금과 근저당 해지 비용을 합하면 최소 13억 원, 최대 15억 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그 금액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혹시 좀 아시는지 하고요, 지난 6월 24일 날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수지구청에 후보자 혼자 갔었습니까? 그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가진…… 우선……

○**위원장 김성순** 아니, 답변이 길면 답변은 보충질의 시간 때 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간단하게……

○**위원장 김성순** 간단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제 동서 회사는 반도체 후가공 업체인데요, 2008년, 9년에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올해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세계 17위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후가공 업체로서 가장 큰 회사고, 제 동서 사실은 재산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한나라당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영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후보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감사합니다.

○**신영수 위원** 능력과 성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주변의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사 문제에서 고용정책으로 정책이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나 일부 여론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전문성이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보다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보좌관도 좀 하면서 그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고요, 또 국정기획수석으로서도 국가고용전략회의 상근위원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총괄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한 16년 지내시고 대학교수도 역임하시고 국회의 원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해서 두루 겸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성실한 의원으로서 17대 때 활동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 건수가 74건, 그다음에 본회의 출석률이 92.4%, 상임위 출석률이 81.3%로 아주 우수한 위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재직 시 10대 주요과제를 하셨는데요, 국가고용전략회의 상근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이라든지 금년도의 고용회복 프로젝트, 또 인문계 대졸 및 취업자 직업훈련 지원방안 등을 수립할 때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앞서서 이른바 서별관 회의라든지 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를 거치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올해부터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국가에 봉직하는 사람 자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청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7대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그런데 07년도 4월에 피감기관인 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보내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때 제가 밝힌 사실이기는 합니까라는 공식 후원금이 아니고 비공식 후원금이 와서 제가 돌려줬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다음에 05년 10월 또 피감기관인 대한적십자사에서 상품권을 보내왔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것도 언론에 보도가 일부 되었습니다마는 국감을 앞두고 아마 저희 방의 보좌관들한테 대한적십자에서 상품권을 보내왔는데 저희가 다 돌려줬습니다.

○**신영수 위원** 군대 관계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들께서 병역기피 운운하셨는데 군대를 어떻게 복무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는 39사단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여러 군데 옮기게 되었는데 동사무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경남지방병무청에 차출되어 가지고 주특기 배정작업을 하느라고 특별한 곳에서 야간작업을 두 달 정도 하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수 위원** 보충역으로 근무하신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소집해제되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여러 위원께서 기고문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기고문을 한번 언급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재직 시절에, 2002년도입니다. 교수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이라면 공무원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진대 공무원의 열의와 창의력이 높지 않고 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교수도 하시고 또 공무원도 하시고 또 정치도 하고 계십니다. 장관에 취임하신다 할 경우에 공무원의 창의력과 열의를 끌어올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하기는 제약이 있겠습니까마는 결국 정책 실행제라든지 권한을 하부로 많이 위임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나서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확립한다든지 또는 시간 근무하는 것도 유연하게 본인이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등이 교수처럼 좀 신바람나고 자율적이고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근무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선도한다면 좀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선수범할 수 있도록 장시간 근로관행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아주 소수의 간부들만 나오고 나머지는 일체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최근에 행안부에서 외부 전문가로 5급 공무원 채용의 50%를 선발 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98년도 문화일보 오피니언 란에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할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인력으로 개방형 충원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신분 상승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 국장 이런 중견 간부는 충분히 외부에서 활동한 이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니까 개방형으로 충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대졸자를 바로 개방형으로 채용하려면 검증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행정고시 제도라는 필기시험, 단발성 시험에 입각한 제도가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만큼 행정고시 제도 자체도 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진화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영수 위원** 후보자께서는 문화일보 2000년도

에 보면 네 가지로 사람을 좀 평가했습니다, 지도자를.

명부·명계, 똑부·똑계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때 워딩대로 한다면 ‘명칭하고 부지런한’을 ‘명부’라고 하는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좀 재밌게 쓰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수 위원** 장관님은 네 가지 리더 유형 중에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직까지 리더가 되어 보지 못했고 스태프로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똑똑한지 명칭한지는 제 스스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왔다, 참모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멸사봉공하자 그런 자세를 견지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영수 위원** 능력과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에 임용되신다고 할 경우에, 이번 검증 절차를 밟아서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짐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거기에 쓴 글대로 가급적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데없는 일들을 좀 많이 줄이고, 저는 가급적이면 권한과 책임을 많이 밑으로 이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훌륭한 리더가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타임 오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고,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9일 날 중소기업 303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83.3%가 전임 노동자 수를 현행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보면 전에는 1.48명이었는데 타임 오프제가 실시된 후에는 1.5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대상이 좀 차이가 있고요. 원래 또 입법취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관

대하다면 어색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임오프제도가 좀 상대적으로 대기업 쪽이 좀더 엄격하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비추어서 그렇게 어색한 결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인천 부평 을의 홍영표 위원입니다.

박재완 장관후보자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고위 공직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위장 전입, 그다음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많이 그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참 국민들은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재완 후보자께서 아까 보충역으로 군대 근무한 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지만 납득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이렇게 보충역 판정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고혈압이 지금 현재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가 해명을 우선 드렸으면 합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고혈압이 수축기에 160이기 때문에 보충역으로, 그러니까 3을중이지요. 3을중으로 해서 보충역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국가기관에서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병역기피를 하거나 또 이 경우에는 현역은 아니고 보충역으로 1년만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의 기피라고 할까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저도 의사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160 정도나 되는, 고혈압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후보자께서는 ‘징병검사장에서 그것을 알았다, 나는 전혀 그전에는 몰랐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운동도 다 하시고 전혀 본인이 느끼지도 못했다,

그런데 징병검사장에서 내가 160이나 되는 고혈압 증증환자라는 것을 거기서 알았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고혈압이라는 사실은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와 유사한 게 있는데 나중에…… 유사한 게 어릴 때부터 있는데요 비공개 간담회 때, 제 개인적인 병력에 관한 사항이라서 비공개 간담회 때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숨기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MB 정부 들어와서 장관되시는 분들이 워낙 병역기피가 많아서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진부한 것처럼 되기도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적증명서, 오늘 제출하신 자료에만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고혈압 수축기에 160으로 해서 보충역으로 됐고 그런데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경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최근에 고혈압으로 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신 것은 없다, 약을 먹고 있지도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혈압이 아주 하나의 고질적인 병이고 이래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송구스럽습니다 마는 시간이 자꾸 가시니까, 지금 국회 내에도 증인이 계시고요, 현재 의원님 중에도. 제가 감사원에 근무할 때 계시던 많은 증인이 계시니까, 제가 나중에 비공개 때 해명은 하겠습니다. 단연코……

○**홍영표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군의관들이 신체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처벌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홍영표 위원** 이게 한 30년 전 일입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명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하여튼 비공개 간담회 때 해명을 하면 그것을 좀 이렇게……

○**홍영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각을 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개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한 정책을 입안하시고 그것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국정기획수석으로서 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사실은 세종시, 이것도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지난번에 정말 전 국민들을 또 대립과 갈등에 몰아넣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4대강사업, 아까 확신을 가지고 성공한다고 말씀하시고,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4대강에 대해서 홍보예산 잡은 것만 보니까 한 530억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종교계까지도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실패한 정책이었었고요, 4대강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을 일방적인 홍보와 설득으로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직 제의를 받았을 때 MB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을 실패한 분이 이렇게 회전문 인사식으로 또 바로 20일 만에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사관계도, 지금 MB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고 안정되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설립신고를 노동부에서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일체 용역도 주지 않고 그냥 고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지켜 가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사관계는 종전보다 안정되어 가는 추세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노사분규 건수도 줄어들고 노사끼리 합의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까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안정 추세에 있다고 보고요.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이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히 권한을 행사하거나, 물론 의견을 낼 수는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책사업의 경우는 보면, 지난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한 50년간 진행된 국책사업들을 보면 거의 논란, 반대나 찬반 논쟁 속에서 추진되었고 심지어 완공되기 하루 전날까지 반대시위가 현장에서 있고 그랬습니다. 일부 국책사업은 19년씩이나 기간이 걸리기도 했고 해서, 저희가 홍보 부족을 절감하면서도 한편 좀더 논의가 편 가르기 양상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차분하게 진행되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외람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규 위원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지역 손범규 위원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창출과 또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해소,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의 해소, 균형 잡힌 노사관계 형성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정말 산적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셔서 참 어깨가 무겁고 사명감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부장관후보자의 비전과 철학이 노동계 종사자의 권익에, 또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비추어서 철학과 비전을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의 일단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는 첫째로는 공공부문, 정부나 공공부문 내부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있고 그걸 벗어난 사회 전체,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어떤 역할이 있고, 두 가지로 보여진다 이거지요. 그걸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래서 공공부문에, 말하자면 정부 청사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반대를 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손범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진의는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안 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는 어디까지나 사회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경제구조적 개혁을 통한 근본적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지 공공부문에 편의적으로 그저 전시행정식의 일자리를 몇 개 만들고 치우는 그 정도는 정부의 관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라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정확하게 말씀,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범규 위원 청년고용의무제라는 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부문에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일반사회에도 전체적으로 청년고용을 의무화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됐는데 일반사회 부분의 청년고용 의무에 대해서는 벨기에에서 로제타 플랜이라는 것을 시행을 해 가지고 하여튼 무조건대고 사원의 3%는 어느 기업이든지 청년을 고용해라, 그렇게 안 하면 제재를 가하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이라면 전체 50명 이상 직원 중의 3%는 불문곡직 청년을 고용해라, 이렇게 법을 시행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법을 현 단계에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로제타 플랜은 단기간으로 보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켰다든지 또는 로제타 플랜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든지 그와 같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 아직까지 공과에 대해서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우리 대기업들이 너무 경력사원들을 선호하니까 청년을 많이 뽑으라는 의무고용제의 취지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사회적 계약 자치의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다만 그 취지가 맞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데서 정규직 노조 등의 고용에 대한 보호를 조금 완화하고 그리고 임금체계 등의 스케줄을 완화하면 연공급 체계를 완화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여력으로

로 젊은 청년들을 많이 뽑고, 또 중소기업은 청년인턴제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갑니다만 대기업의 경우는 청년인턴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가 취업 경로도 선진국처럼 인턴 같은 것이 정착되는 것이 곧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대기업의 청년 취업이 늘어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사회주의 국가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손범규 위원 로제타 플랜으로 관념화되는 청년의무고용제도의 법제화,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포퓰리즘에 빠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그리고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이 사회가 또 대기업이, 특히나 대기업이 오죽이나 청년들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 외면하고 인색하고 그저 경력사원, 경력사원…… 대기업들이야말로 현찰만 좋아하고 바로 당기순이익만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대기업들이 좀더 인재 창출의 하나의 도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청년 고용을 잘 하는 데 좀 앞장서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는 생각 안 드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더 붙여서 말씀 올리면 대기업에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니고 청년들을 키우고 양성해 나가는 시스템, 대학에서의 교육 같은 것도 그러면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정말 길러서 보내줬느냐, 아니면 대학 졸업만 했지 뽑아 놓으니까 다시 대기업에서 다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담 같은 것을 떠안게 한 측면은 없느냐 하는 반성도 함께 해야 될 것이고, 또 청년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눈높이 또는 자기의 어떤 새로운…… 정말로 명성이라든지 당장 편한 곳을 원한다기보다는 좀더 장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업·진로 교육 같은 것도 정부가 좀더 제대로 해서 그냥 인기 기업, 인기 직업에만 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반성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범규 위원 예, 역시 한쪽에만 치우치는 어떤 포퓰리스트적인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타임오프제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오프제 관련한 정부의 매뉴얼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매뉴얼은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매뉴얼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매뉴얼이 정부 노동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 준칙의 역할을 하고 또 법해석의 하나의 준거의 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숙고하다 보면 그 매뉴얼이 타임오프제라는, 즉 노조전임자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법적인 조치였는데, 그 매뉴얼이 그것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인데, 그 행정의 준거에 불과한 것인데 타임오프제를 벗어난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영역 중에서 타임오프제라는 하나의 파트를 벗어난 다른 영역, 노사관계의 다른 영역의 본질적인 부분에까지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가 또는 기존에 쌓아 왔던 근로시간문제 부분 파트 이외에 다른 단체협약의 체결 과정이라든가 단체행동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쌓아 왔던 기존의 관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기득권 이런 것을 침해하는 작용으로 계속되고 사용자에게만 환영받고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들,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타임오프제하고 관계도 없으면서 간접적인 영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다른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장관이 되시고 나면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규칙의 개정, 매뉴얼의 개정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지적하신 측면과 같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다 하는 주장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매뉴얼도 있다 하는 양측의 주장 등이 있고 또 고용부에서 매뉴얼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고치냐, 또 이 성격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장관 향으로 보았을 때 장까지 지키는 게 맞느냐, 관까지 지키는 게 맞느냐, 그 밑에는 그러면 그냥 가이드라인이나의 성격 등이 혼재되

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너무나 다양한, 현장이 다양하더라는 것과 그것을 모두 담기는 매뉴얼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화하고 그러면서도 지침을 제시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간극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 간극은 노사 자율로 협의해서 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손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손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순**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인사청문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오후에는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후보자께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 특히 고혈압과 관련해서는 좀 만족한 답변을 못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위원장 김성순** 그렇지만 이것을 들으시는 국민들은 아마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좋습니다.

그것 먼저 듣고 하도록 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서 혹시 비공개 간담회 등에서 말씀을 올렸으면 했습니다마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솔직하게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른바 경기(驚氣)라는 것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라서 저는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큰 상처가 났고 흉터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군의관이 ‘흉

터가 왜 났느냐’ 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 어릴 때 이렇게 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정밀검사를 한 번 받아 봐야 될 것 같다’ 해서 한 달인지 두 달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때 군의관이 ‘이것은 조금 격한 운동이나 훈련을 받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충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충역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대학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금 원광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선배가 심장 수술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혈액이 부족하다는 전언을 듣고 저와 제 친구가 세브란스병원에 수혈을 하러 갔었습니다.

제 기억에 지하에서 혈액을 뽑았는데요, 뽑고 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고 옆에는 수술받던 선배의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혈압이 높아서 그런지는 몰랐었고 그 이후 신체검사를 받게 된 것이고 이후에 제가 감사원에서 84년에 근무할 때 두 차례 일부 직원들과, 여러 직원들입니다. 한 20명되는 직원들과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제가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쓰러졌다가 제 스스로 깨어났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머리 뒤에 수술해서 꿰맨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다른 몇 분들과 식사를 하다가, 또 역시 한 번 화장실에 가다가 카운터 앞에서 제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함께 계시던 증인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계시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 은퇴하셔서 각종 기업체 감사라든지 이렇게 여러 분이 계시고 제가 어릴 때 경기를 해서 흉터가 남아 있는 것은 저와 가까운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연전부터 녹내장이 있어서 약을 매일 투입하고 있습니다. 녹내장의 원인은 안압이 높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어떤 계기에, 계기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의사와 상담을 한 번 했었습니다. 했더니 의사가 당신은 평소 혈압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술을 많이 마

신다든지 했을 때 혈압이 상승하는 속도가 빠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혈압 상승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몸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영어로 피브라일 시저(febrile seizure)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담배도 끊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하는 조언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추가로 좀더 이와 관련된 정황 근거가 더 있기는 합니다 마는 어쨌든 저를 믿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성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첫 번째 질의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시간이 아주 짧네요. 그래서 답변도 30초 이내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청와대 정무수석 또 국정기획수석, 특히 일 많이 하시는 이명박 대통령 모시면서 엄청난 격무였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건강 말씀입니까?

○**조해진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이후로 혈압이 그렇게 높거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조해진 위원**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특별히 관리하지는 않고……

○**조해진 위원** 몸 컨디션에 대해서 워치(watch)를, 스스로 살핀다든지 주의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스트레스 같은 것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추정할 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조해진 위원** 장관 직무수행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그때 미국에서 상담했던 의사 말씀은 경기 이런 것은 만 5세 이전이 위험하고 5세가 지나면 안정이 되어서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조해진 위원** 오전 질의 중에 4대강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정부가 4대강사업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4대강사업을 하게 될 때에 도움이 되는 효과,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 한 부분이 4대강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에 4대강사업 자체 그 공사기간 중에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그 지역에 돈이 풀린다, 그 지역에 기업들이 일감이 생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조해진 위원** 그런데 현실은 지금 1단계 공사를 하고 있고 이후에 연계사업이라고 하는 2단계 공사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1단계 공사에 있어서는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지역에 사업, 일감이 전혀 떨어지지 못했어요. 지역업체들이 일을 못 했습니다. 대기업들과 그 하청 또는 협력기업 다 내려와 가지고, 또 협력기업들도 지역에서 등록해 가지고 다 했고 그래서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4대강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상에서는 그동안에 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찬성하면서 지지해 온 게 그 유역의 주민들인데 주민들은 온갖 불편을 견뎌 가면서, 위험 또 불편 이런 것 견뎌 가면서 참고 있는데 그 약속도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후보자님 답변에는 2차 연계사업에는 그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말로만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부 구조적인 기업체 간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고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당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처들과 협력을 하고 또 해당 기업들을 꼭 붙잡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2차 연계사업에서도 지역은 아무런 도움 못 받고, 일자리 창출 안 되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위원님 지역구 이신 밀양, 창녕 등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정부는 계약 회계규정까지 고쳐 가면서 4대강사업의 40% 이상 지역건설업체에 공동도급을 하도록 하고 농림부에서 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

업, 농경지 리모델링 같은 것을 다 포함하면 전체 지금 계약건수와 금액으로만 보면 60% 가까이 해당 지역업체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되는 데서는 일부 차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려간 대형 건설업체들도 예컨대 레미콘이라든지 준설토 운반 트럭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해당 지역업체 쪽을 다 쓰고 있다는……

○**조해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죄송한데, 하다못해 지역의 전기가설사업이라든지 조그만 공사 통로 만드는 사업조차도 마음만 있으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예, 그 부분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구요.

오전에 청년실업 문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청년들은 유사 이래,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예요. 지금 청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겼고,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상식도 풍부하고 지식도 많고 온갖 것 다 자유자재로 다루고 외국어 잘하고, 자격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외국에만 내놓으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청년 세대가 국내에서는 취업에 경쟁력이 없어요. 이것은 저는 젊은 세대들한테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할 일이 아니고 그런 스펙을 가진, 경쟁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고용시장에서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는 우리 어른 세대 또 정부, 고용시장을 정리하고 조정해 내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공감합니다.

○**조해진 위원** 짧게 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공감하고요, 이른바 스펙을 갖춘 훌륭한 젊은이들의 마음에 드는 일자리, 예를 들면 부품·소재와 같은 뿌리산업, 녹색산업과 같은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또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제도도 바꾸고 또 근로 관행도 바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리고 오전 회의 때 후보자님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 고용부가 고용 문

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미 고용의 문제는 전형적인 틀을 우리 사회가 벗어나 버렸어요. 아까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함정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틀을 가지고, 과거의 그냥 통념적인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굉장히 사회 자체가 역동적이고 또 흔히 말씀하는 통섭 또는 융합,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업 중심으로 또는 시장 중심으로 또는 생산성 중심으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그 관념을 저는 벗어 버려야 되고 총체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동의합니다. 대표적인 게 UAE 원전 수출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전 같은 데와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수원 그리고 민간 기업들 여러, 명칭을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무슨 중공업, 건설회사 등등이 함께 컨소시엄으로 해서 해외에서 좋은 일감도 따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공공부문인 한전 같은 데나 한수원 같은 데도 충분히 일자리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래서 청문회 이후에 만약에 부임을 하시게 되면 노동부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 오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당위론이나 이론이 아니라 해법을 내놓고 문제를 풀어 가는 그런, 그리고 고용의 전담 부처로서 다른 부처들과 같이 협력해서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피부에 다가오게 하는 결과를 담는 그런 고용부가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흑묘백묘론을 되새겨서 실용적으로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아침에 제가 후보자께서 혹시 병역에 있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의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

니다.

제가 '저렇게까지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또 질문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이 좀 마음 아프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의문을 만약 갖는다면 그것을 대신해서 또 풀어 줄 책임이 국회의원한테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자세하게 지금 살펴보면 다른 질병, 아까 안과질환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 질병에는 확인한 의사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유독 고혈압 결과에는 도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병무청에 지금 이걸 하면서 물었더니 '그건 통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병무청에서도. 도장이 안 찍혀져 있거든요, 여기에도.

그리고 정밀검사 결과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 정밀검사를 따로 받으셨기 때문에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면 정밀검사 결과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첨부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의사의 도장도 찍혀 있어야 되는데 찍혀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자료 준비하시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건 몰랐고요. 안과질환은 제가 한 6, 7년 전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경 위원** 예, 그것은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당시에는 안과질환은 없었습니다.

○**이미경 위원** 아니, 여기에 있습니다, 안과질환도요. '근시양 E2A' 해서 '민병헌'이라는 사람이 도장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근시……

○**이미경 위원** 예, '근시양' 해서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원인미상의 고혈압으로 병역면제나 공익근무 판정을 수천 명이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형규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 입수해서 이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받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게 하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

료를 죽 받아서 2003년부터 5년간 이 자료를 받았을 때 병역면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징병검사자가 모두 3122명이나 되었는데, 이런 건으로 해서, 그래서 왜 이런 질환이나 해서……

이것을 본태성고혈압이라고 부른답니다. 갑자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높아져서 고혈압이 되는 경우를 본태성고혈압이라고 부르고,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보았을 때 팔약근이나 이두박근 등 신체 일부분에 갑자기 힘을 주면 평소보다 혈압이 30~40mmHg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을 활용해서 병역기피 또는 공익근무 판정 수준으로 활용하는 예가 많아서 계속해서 이걸 조사를 해서 적발을 하고, 이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병무청이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2차 신체검사에서는 혈압 전문요원이 별도로 수동혈압계로 측정을 하고 4, 5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24시간 혈압측정 및 약물검사를 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병무청에서 아주 이런 예들이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본태성고혈압의 문제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이유는 또 아닌가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제가 질문을 하고 나니까 인터넷으로 또 시민들이 그런 질의를 물어보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와 한번 높아진 혈압은 절대 잘 안 떨어지는데 혈압을 재 봐야지 된다, 고혈압으로 평생 고생하고 있는데 약도 먹지 않고 정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으면 좀 알려 달라,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의구심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갑자기 혈압 상승속도가 높아진다는 하는 그런 것만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답변을…… 제가 무슨 본, 무슨 성……

○**이미경 위원** 본태성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2007년도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76년도에……

○**이미경 위원** 잠깐만, 잠깐 죄송한데요. 제가 그냥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4대강사업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특별한 자신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여쭙보고 싶은데요.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진실' 결방이 됐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미경 위원** 그래서 PD수첩 제작진의 잘못인가 MBC 사장 등 이사진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렇게 그냥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 제시하고 나서 문제가 안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결방시킬 일이 아니고 분명하게 알릴 것은 다 알리고 또 토론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PD수첩 방송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판부에서는 방영해야 된다는 판결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식의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과연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인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고, 나머지 이게 일자리 많이 만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건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한다는 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병역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그 경위를,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안질환에 관해서 말씀 올렸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하루 종일 정밀검사를 받았습시다. 그때 혹시 여기에서 제기하시는 그런 약을 먹고 일부러 혈압을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등등의 검사를 다 받아서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무슨 약을 먹거나, 팔약근 그 말씀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그런 것 등은 일체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PD수첩과 관련해서 불방 결정은 회사 내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또 제가 맡던 업무를 떠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서 말씀드리기는 뭣 합니다마는 그게 과거에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있을 때 PD수첩에서 방영한 내용이 크게 논란이 되어 지금도 법정에서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경 위원** 제가 아까 질문, 나중에 다른 분이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 안 한 중요한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이 자료에 있어서 왜 도장이 찍혀져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건 제가 알기가 어려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답변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도장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것은 도장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제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법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법관 위원** 장관후보자께서 4대강사업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오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4대강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께서 지금 그 실태, 사업수행 과정에서 현지 지역의 업체들이나 현지 지역주민들을 활용하는 40%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형편없습시다.

제가 장관후보자님하고 수경스님, 제 지역구가 여주이기 때문에 수경스님 모시고 대담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그렇습시다. 아까 트럭 같은 것은 현지 것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 공사업체와 하청업체들이 기존의 연분을 갖고 있던 트럭이고 뭐고 전부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자재도 그 사람들이 연분이 있던 데서 그 인근에서 다 갖고 갑니다. 하다못해 주유하는 것도 자기들이 알던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갖고 그 지역에서, 지금 여주 지역에서도 '이게 여기 와서 공사만 할 뿐이지 우리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업체들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업체들을 조금만 활용해도 좋은데 자기들 기존에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있어서 전부 다른 데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제가 정부나 우리 당정회의에서 때마다 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말로만 했지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장관님 후보자 혼자 하실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기회에 저거 하시게 되면 관계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실적을 좀 받아 보십시오,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괄 수치, 전체 농경지 리모델링, 저수지 뚫 높이기, 보 건설, 준설, 하천 정비, 기초환경시설 확충 등을 다 모으면 그렇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보 건설 현장은 턴키베이스로 되기 때문에……

○**이법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실태와 조해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게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태하고 안 맞는 답변만 하지 마시고 관계부처하고 해서 실적을 좀 받아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희들도……

○**이법관 위원** 과연 현지 업체들이나 현지……이 근로자들도, 자기들이 쓰던 인부들 다 데려다가 써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니까 이런 실정에 있다는 걸 아시고, 이러니까 자꾸 불신을 받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지역밀착형, 주민친화형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삼성경제연구소가 청년실업 장기 소득상실액을 23조 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이 청년실업 문제는 단지 그런 청년층의 실업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문제와 우리의 또 잠재성장력을 어떻게 더 키우느냐 이런 참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7월 달에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금 취업자가 2430만여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년 전보다 한 47만 명 증가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지난 5

월에는 6.4%였는데 7월에는 8.5%다, 취업자는 증가했는데 청년실업률은 좀 떨어지고 있는 판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법관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청년 모수가 전체가 좀 줄어 가지고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에서는 청년 신규 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또 눈높이가 맞지가 않고 하는 측면 등등의……

○**이법관 위원** 하여간 잘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청년실업률이 줄었다는 것은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는 정책에 비해서 실태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법관 위원** 장관님도 자녀들이 지금 한창 청년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잘 세워 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 보지요.

지금 행정인턴제, 청년인턴제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인턴제고 청년인턴제고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고 이게 처음 6개월은 인턴으로 기업에서 채용하면 50% 보조를 해 주더군요. 그다음에 6개월 후에 정규직화하면 6개월 동안 50%를 보조해 줘요. 이런 식으로 결국엔 1년은 정부가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정규직화된 청년취업자 80%가 정규직화됐다, 그런데 실업률은 청년실업률이 떨어진다고, 저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1년 지난 다음에는 그 청년들이 과연 정규직으로 제대로 기업에서 계속…… 그다음부터는 그 기업이 임금이고 보수고 모든 재정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고 하는 얘기인지…… 그러면 청년실업률이 떨어질 리

가 없지 않느냐, 제 소견에 그런 생각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적하신 점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외형상 볼 때……

○**이범관 위원** 그래서 80%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세 가지 제도에 의해서 정규직화한 사람들이 과연 그대로 정규직으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에서 받을 것은 아닌데 다음에 상임위에 자료로다가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분들 자료 좀 준비했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왜 그러느냐면 정부가 1년 동안 가시적으로 국민에게 그럴 듯하게 포장한 실업문제의 해결책으로 나오지만 지나고 나면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할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님은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선 청년을 공급 측면에서 대학 쪽에서 산업현장의 수요하고 맞도록 커리큘럼을 바꾼다든지 또는 취업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청년들 수요하는 측면, 기업 측에서 다양한 정규직, 고령자 등과의 임금격차라든지 근로조건 등을 좁혀 가면서 청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좀 바꾸어 노사문화도 좀 바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른바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것을 구축하고 지금 갖 시작한 그런 제도등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범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그동안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범관 위원님께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뭐 더 파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어떻게 노동부장관후보자의 입장에서 ‘예, 그렇게 하겠다’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부에서는 고용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을 올해 도입을 했고……

○**이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후보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찬열 위원**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 갖고요, 후보자님, 제가 답변해 달라고 그럴 때만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올 7월 달에 대통령실에서 급여를 받고 또 7월 달에 재직 중이신 대학에서 75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아마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했는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니요.

○**이찬열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75만 원 받은 것은 5월 달인가에 제가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야간 과정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

○**이찬열 위원** 2010년 7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급여가 아닙니다.

○**이찬열 위원** 하여튼 뭐 급여로 나와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하고 같은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뭐 급여인지 아닌지 이것은 알 필요까지도 없고 일단 수입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특강을 나갔던 강사료입니다.

○**이찬열 위원** 좀 사퇴, 퇴직을 했다가 나중에 들어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직 휴직 중입니다.

○**이찬열 위원** 아,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휴직 중인데도 그러면, 이게 7월

달로 잡혀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국정관리대학원에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과정에 제가 나가서 특강을 하고 강사료가 뒤늦게 입금된 겁니다.

○**이찬열 위원** 한 번 강의하시는데 50만 원 받으신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게 70만 원쯤 될 겁니다.

○**이찬열 위원** 아,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보통 특정 대학원에서 전문가 초빙했을 때는 그 정도, 100만 원 이상……

○**이찬열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한 번 받은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찬열 위원**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능력, 이 모든 것을 두루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그 강의를 청와대에 신고한 게 있습니다. 총무기획관실에 신고를 했습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는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는 위장이라고 인정하지는……

○**이찬열 위원** 그것은 아까 있던 거 말씀드리는지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참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완 후보자가 좀 깨끗하게 보여지는 거는 이번 3기 내각 후보자들이 워낙 의혹이 많고 또 도덕적 결함이 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착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두발언에서 ‘나는 국가에 빛을 많이 진 사람이다. 빛을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정무수석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옮길 때 회전문인사라는 비판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고용노동부장관을 마치시는 날은 이러한 비판 내지는 회전문인사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늘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이 공직으로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다짐을 합니다.

○**이찬열 위원** 그리고 참 노동은, 우리 삶의 하나하나가 모두 노동자의 노동 결과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동의합니다.

○**이찬열 위원** 이 연필 하나도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물 한 모금을 마셔도 노동자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의 산물로써 우리가 삶을 같이 영위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히 고용노동부가 노동과 노동자를 중시해야 하고 아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노동자를 빼고서는 우리 삶을 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노동이 바로 우리의 삶, 이 현실 이 자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노동자를 경시하지 않는 그런 사회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찬열 위원**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비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도 탄광에서도 막장에서 일도 해 보고 자전거 배달도 해 보고 노동자의 애환과 아픔을 다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열 위원** 참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을 수행하실까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밖에서 고용노동, 참 정말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이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입장에 있었는가를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땀으로 인생을 적셔 가는 노동자의 삶을 정말 진실되게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듬어 주는 그런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이라 믿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셔서 후보자를 지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셨을 때 정말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명심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정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 후보자님, 아까 인사말씀에도 취약계층, 고령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각 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또는 취약계층을 대변해야 될 사람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취업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알기에는 비장애인보다도 10% 약간 넘게 취업률이 낮아서 전체적으로는 한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전체 일반 국민의 절반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 취업의 그 반을 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는 곳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정선 위원** 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세운 설립 목적을 보니까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에 있어서 과연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리더로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 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애정, 뜨거운 관심이 가장 중요하

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겪는 아픔과 일상에서의 애로, 건의 이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전문성이라고 본다면 저는 그런 정도에다가, 물론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 그것이 꼭 장악력 이런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솔선수범이라든지 헌신하는 자세 등등을 다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정선 위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따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통합사회로 가는 것이 복지사회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함께 살아가고 그 리더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간에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장애인의 아픔과 장애인의 모든 것을 함께 안고 가야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 그것이 진정성으로 서로 소통이 될 때 그것이 리더로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리더와 또 현장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해결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일단 인사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고 또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임명되신 분께서 제가 알기에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장애인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경험 등도 있기 때문에 의견상 보았을 때 크게 하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예, 분명히 의견상에는 하자 없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소통의 문제, 그 마음에 진정성을 갖고 장애인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것이 진정 국민으로 가지 못하는, 물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 것은 맞습니다.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장과 정부의 입장이 충돌

했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충돌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은 저는 해답은 진정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장관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소통을 열심히 해서 양측 간에 원만하게 수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다음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정선 위원** 올해 공공부문은 3%입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은 아직 2%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2%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부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년고용의무제 질의를 했을 때 장관님께서 시장경제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의무고용제가 말로만 의무고용제를 지금 하고 있지 실질적인 고용은 전혀 고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평이고요, 또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조업이라든가 단순노동에 그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큼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만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만들어 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장애인들을 고용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오히려 일반 정부 부처의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놓여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의무제와 같이 청년의 고용의무제 또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표본으로 삼아서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고 다각적인 측면에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동감하고요.

장애인의무고용제가 단계적으로 민간부문도 3%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공공부문이 좀 부진한데, 예컨대 공무원시험이 공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께서 많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공무원시험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장애인들께서는 또 청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원천적인 약자 계층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선 위원** 공정한 사회를 약속하신 대통령 말씀처럼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玲愛 委員** 오전에 이어서 남녀고용평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2010년 현재 시행 2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모집 및 채용, 퇴직, 해고 등 고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 차별이 금지되고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성 경제활동에 관한 현황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문제는 단순히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넘어 국가 경쟁력 및 생산력 향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도 대체로 같은 생각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저도 1995년에 이른바 여성할당제, 당시 이름은 여성채용 목표제였습니다마는 그 정책을 청와대에 있을 때 입안 수립한 바가 있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玲愛 委員** 그런데 2008년 기준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4.7%로 OECD 평균인 61.3%보다 7% 낮고 이는 OECD 30개국 중에서 27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2%이며 이는 2004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50% 아래로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2008년에 수립한 제4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인 6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향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 환경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무엇보다도 출산과 보육 부담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닥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라든지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점과 그리고 근무시간 같은 것을 좀더 유연하게 바꾸고 또 상용시간제 근로 같은 것을 여성의 경우에는 좀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출산 또는 보육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직장에 편안하게 복귀할 수 있는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들의 복귀 문제 또 새로 일하게 하는 문제 이런 쪽 세 측면에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李玲愛 委員** 예, 기대가 큼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감사합니다.

○**李玲愛 委員** 그런데 지금 노동력 관계에서는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육아휴직제도 같은 것이 좀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 같은 것이 우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쪽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 하는 점, 또 지금 출산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백화점식 사업과 정책이 이른바 단편적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여기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걸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걸음이라도 큰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정말 여성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玲愛 委員**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감사합니다.

○**李玲愛 委員** 그런데 고용평등과 관련해서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남성 임금에 비해서 여성 임금 수준이 64.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여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9년

현재 14%대이고 특히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은 8.4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 지위의 질적 향상 또한 중요한 과제인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평면적으로 보시면 남성 근로자의 약 3분의 2 수준에 임금이와 있습니다마는, 그 재직기간이라든지 말씀하신 지위라든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보면 그 임금 격차가 약 한 15% 정도로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재직기간도 짧은 게 여성이 출산 이런 부담 때문에 짧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지위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것도 남존여비의 그릇된 우리 의식이 아직 남아 있는 점과 함께 출산, 육아 등등의 부담 때문에 전문성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핸디캡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 여성은 조금 점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핸디캡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승진에 우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李玲愛 委員**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차명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오전의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수석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정말 중요한 현안인 세종시 수정안 그리고 4대강사업을 기획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강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반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신 전임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께서 왜 다시 노동부장관에 임용하셨을까, 저는 상당히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혹시 이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다, 이 실패의 자산을 활용해서 노동부장관으로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하나,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의

건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안 실패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어려움 내지는 실패의 교훈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인사권자의 그 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사업의 매끄럽지 못한, 한쪽은 실패를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교훈을 거울삼아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명진 위원** 후보자께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제가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저와 동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실패 내지는 어려움의 경험을 국정에 반영토록 하시겠다 또 임명권자가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러면 진짜 정말 교훈을 제대로 얻고 있는가 한번 제가 여쭙 보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했거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께 여쭙 보겠습니다.

첫째, 그 정책들이 틀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정책은 맞는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보 부족이다, 후보자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셋째, 그것이 아니라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반대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최소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넷째 그것도 아닌 다른 견해가 있다, 어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차명진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홍보? 두 번째, 많이 했어요. 지금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홍보 많이 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사람들이 안 찾아가고 안 봐서 문제지요. 많이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어느 게 더 뭐……

○**차명진 위원** 빠진 게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반대자의 의견을 반영하려 하거나 최소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많이 했습니다.

○**차명진 위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는 많이……

○**차명진 위원**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도 현장에는 아마……

○**차명진 위원** 후보자님, 세종시 수정안을 최초로 주창하고 가장 주장한 사람이 누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는 저고요. 그다음에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그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했던 제 입장에서, 현장에 찾아가 본 사람 입장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컨대, 보세요. 세종시 수정안을 내려면 약속 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고 출발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신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상처를 어떻게든 치유하고 출발해야지 상처 난 자리에다가 수정안 민다? 그것은 더 상처를 낼 뿐이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동의합니다.

○**차명진 위원**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입니다. 작년 말에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말 금년 초에. 이것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그럼 한번 순차적으로 해 보자, 좋은 선례 만들면 서로 해 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게 왜 안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선례……

○**차명진 위원** 국정기획수석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답변드릴까요?

○**차명진 위원** 이 점 고려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질문을 수 없이 받았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선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울산 대화강이 선례이고, 한강이 선례이고, 중랑천이 선례였습니다.

○**차명진 위원**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 4개의 강에서의 선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차명진 위원** 후보자님,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깊이 통찰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명박 정부를 살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면 내가 오늘 그만뒀도 좋

다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당성,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 이것이 국정과 정치에 있어서의 본령은 아닙니다. 후보자님, 그 부분이 후보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온 몸을 던져서 그것을 해 보려 했기 때문에 '아, 결과가 좋다. 과학적으로 맞다.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뼈저리게 했는데 후보자님은 국정기획수석으로서, 총괄을 졌던 분으로서 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4대강의 어느 강을 빼겠다고 정부가 발의를 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차명진 위원**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리고……

○**차명진 위원** 후보자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차명진 위원** 진작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노동 문제의 중요한 문제는 제 질의를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상급 단체 이 부분 있지요, 인력이 줄어드는 것? 이것 자체가, 그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는 것 자체가 노조법과 관련된 신뢰를 손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그 부분도 거꾸로 얘기하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지적하신 취지를 유념해서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고생하십니다.

후보자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재직 시에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구상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고, 당초 2.2억t이던 준설량이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5.7억t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보 사업비도 보 하나에 평균 30억 원 규모에서 평균 1000억 원으로 엄청나게 증액이 됐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도 경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준설량이 늘고 보 규모가 확장된 이유가 기존 한반도 운하에 주 운수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하는 것 하고요.

또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강홍수통제소에 설치되었던 4대강사업 구상을 위한 TF팀에 후보자께서 관여하셨습니까 하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한반도 대운하 계획상에 나와 있는 수심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6~7m 이상은 수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대강 살리기 공사 구간 1350km 중에서 수심 6m를 초과하는 구간은 불과 23.5%에 그칩니다.

따라서 지금 4대강 살리기 계획이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뭐 대운하라는 말보다는 대형 화물선이 다니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대형 화물선이 다니게 하려면 강 자체를 직강화해야 됩니다.

○**홍희덕 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래야만 경제성이 있게 되는데요.

○**홍희덕 위원** 그것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강홍수통제소에 무슨 비밀 팀이 있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8년 11월 중순에 국토해양부에 있는……

○**홍희덕 위원** 됐습니다.

후보자님, 7분에 한 단원 하는데 답변하시는데 2분, 3분 하면 위원이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뒷부분만……

○**홍희덕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2001년 5월 11일자 문화일보에 '낙하산 막차타기 게임'이라는 기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임명된 사람들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을 했거나 전문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 역시 전직과 현직의 분야가 합리적으로 연계가 되는 경우에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공직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엉뚱한 분야에 임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런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해서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하거나 관련 위원회에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홍희덕 위원** 현대자동차, 아까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천 직고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난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홍희덕 위원** 이번 기회에 현대뿐만이 아니라 사내하도급의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동부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도 내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고용노동부의 현재 인력 상황으로 볼 때 전국의 모든 사업장 전수조사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규직과의 대체 가능성이 높다거나 하는 취약한 사업장 중심으로 해서 고용부에서 실태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좀 비슷한 것이라도 속히 그런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근로시간면제 심의제도와 관련된 노동부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매뉴얼 자체가 법 취지를 벗어났다, 또 현장에서 맞지 않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잉크가 아직도, 그것 제정되고 시작된 지, 마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다시 그것을 개정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법도 아니고 매뉴얼인데 잉크 아니라, 잉크가 금방 안 말라도 잘못되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렇지요? 부작용이 많으면 잉크가 마르지 않더라도 또 마르기 직전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놓고 일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너무 넘친다고 불만을 하는 데도 있고 좀 모자란다고 불만을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양쪽 불만을 어느 방향으로 고칠

것이나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교섭이 끝나고 시행이 된……

○**홍희덕 위원** 교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아까 존경하는 차명진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 상급단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대통령실장으로 가신 전임 장관께서도 언질과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뭐 없는 것으로 치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만을 해서 되느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제가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약속 드립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실상 노동기본권이 좀 후퇴됐다, 80년대로. 친기업적인 노사정책, 파행을 많이 불러왔다고 저는 보고요.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불법, 여론몰이 하면 탄압으로 일관을 했는데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인권침해고요.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민주노총과의 관계 지금 단절하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지금 후반기 새로 오신 장관후보님께서 취임하시면 민주노총과의 관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는 저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제가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우리 노사관계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1987년 체제, 그러니까 노동기본권의 확장이라는 그런 목표로 내달았던 87년 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등이 합법화되고 복수노조 같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해서,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올해 13년간 끌어오던 문제도 매듭이 지어지고 해서 크게 보면 87년 체제가 완성되고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미래 노동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매진할 때다 그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쪽의 축인 노동계, 한 쪽 축에서, 소위 민주노총이나 이런 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장관님의 지금의

설명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소통을 열심히 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성남시 수정구 신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의 성실성이라든지 도덕성 기준은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분입니다. 청와대 수석 때 야전침대를 놓고 일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관후보자의 의견이 앞으로 노동정책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범관 위원께서 청년실업 문제를 아까 전에 질문하셨지만 저도 추가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실업률이 3.7%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실업률이 지금 8.5% 정도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체감실업률이라는 게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이른바 취업애로계층의 실업률 등을…… 그러니까 몇몇 계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신영수 위원** 예, 지금 체감실업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통계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게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잡은 게 있는데 양자 사이의 격차가 좀 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잡은 것은 한 5~6% 정도로 보고 있고…… 청년을 지금 말씀하시나요?

○**신영수 위원** 예, 청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지금 지난달 말에 8.5%로 공식통계가 잡혔습니다. 마는 취업애로계층은 그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또……

○**신영수 위원** 두 배가 아니고 지금 답변이 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게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신영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래서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방안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졸자하고 대졸자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소 방안 좀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는 물론 없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지금 이른바 이중구조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가 한꺼번에 함께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영수 위원** 기술 계층 전문계 고등학교를 좁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영수 위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마이스터고 같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다음에 대학교육하고 현장하고 괴리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역시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교과부 등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좀더 산업체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나오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신영수 위원** 아까 미스매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방안 좀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거기에 관해서도 어릴 때부터 직업 진로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또 고용정보망,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정보망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워크넷이라든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잡영……

○**신영수 위원** 그것 좀 많이 활용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가능하면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죄송합니다.
 ○**신영수 위원** 아르바이트 10계명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많지요. 열 가지가 됩니다.
 아르바이트 실태 파악은 하고 계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는 솔직히 실태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고용부에서는 파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이 실태 파악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청년유니온이라는 세대별 노동자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66%가 지금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영수 위원** 보호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결국 서면근로계약을 맺도록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영수 위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최저임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약 210만 명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이 63% 그다음에 고령자가 36%, 비정규직이 59%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법을 지금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9%나 상승을 해서 일부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10만 명 나온 게 제가 알기에 경찰 부가조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경찰 조사는 가구 방문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신영수 위원** 숫자보다는 대책을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죄송합니다.
 어쨌든 최저임금 실태 등을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계약 같은 것이 좀 지켜지도록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종합직업체험관 건립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제가 사는 거주지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잡월드라고 그러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거기가 상당히 앞으로는 청년들한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보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법령상 근거를 만들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수월하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잡월드가 앞으로 청년들 실업 해소하는 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영수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사회적기업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신영수 위원** 장관후보님께서서는 아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는 고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사회적기업은 적극 장려를 해야 되고요. 고용흡인력이 아주 크고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회복지 지출 부담도 줄일 수도 있고 취약계층의 자긍심이라든지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톨이라고 봅니다.
 ○**신영수 위원** 그렇습니다.
 평균 고용규모가 2007년도에 45명에서 작년도에는 20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 통계를 조사해 봤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줄기는 줄었습니

다.

○**신영수 위원** 그런데 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역시 아직까지 활성화되기에는 취약한 유아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또 처음 시작할 때 의욕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인천 부평의 홍영표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오늘 계속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4대강사업 또 세종시, MB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홍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4대강만 하더라도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이런 프로그램을 경영진이 제지해서 방송 직전에 이게 불방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MBC를 비롯해서 어떤 방송사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아마 한 20년 전에 군사정권에서 보도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언론통제를 했던 그런 이후에 처음 있는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전문가 의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목표를 세워 놓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홍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쇼도 잘 하고요.

제가 장관님도 보면 장관님도 한번 경차 타고 다니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경차를……

○**홍영표 위원** 그것이 온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집에는 보면 항상 차량이 또 따로 부인 명의로 두 대가 있었고……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집에 한 대 있

었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두 대로 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한 대는……

○**홍영표 위원** 윈스툼 한 대하고 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한 대는 아들이 경주에서……

○**홍영표 위원** 어쨌든 하여튼 두 대 집에서 보유하고 있었고 또 보면 골프장 회원권도 항상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게 어떤 서민적인 이미지 이런 것을 위해서 경차를 타고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지는 않고요. 경차를 탔던 것은 제가 녹색성장을 담당하는 주무수석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는 취지였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약 34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대부분이, 현재까지 보더라도 만들어진 일자리의 한 95%가 일용직 일자리입니다. 이것 이 공사 끝나면 다 사라지는 거지요. 앞으로 물론 다른 분야에서 좀더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토건공사를 중심으로 한 4대강사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취업유발계수가 17.3명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을 투입했을 때 17.3명이 이 분야에서는 발생하는데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분야를 보면 교육 및 보건 이런 데는 20.2명, 사회 기타서비스는 25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만 보더라도 훨씬 비효율적인 분야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대강사업을.

그래서 물론 우리 국가의 재정이 충분해서 4대강사업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 좋겠지만 국가 재정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사업의 경중, 선후, 완급 이런 것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 4대강사업은 도저히 지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장관후보자께서는 이게 지금 홍보가 좀 덜 돼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장관으로 취임하시더라도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홍보만 잘하면 되는 식으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홍보 탕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홍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약 53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정부가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PD수첩'처럼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TV 프로그램도 못 들게 만드는 지금 20년 전 사회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비판할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래서 장관으로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부분은 장관이 되시면 바뀌어야 됩니다. '홍보만 잘하면 된다.' 이 잘못된 정책, 아주 빗나간 정책을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홍보를 통해서 잘 알려줘서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홍보에 관한 지적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홍보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고, 경차는 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난 적도 없습니다. 한 군데 사진 한 번 나고 다른 데서 나고 한 것이고요.

그 4대강 관련해서는요……

○**홍영표 위원** 제가 질의를 마지막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렇게……

○**홍영표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서의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적인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고용안정이나 차별해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 정부가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비정규직법을 바꾸려고 할 때 이 비정규직법 바꾸면 1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긴다 이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정부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4대강사업이 당장 사회복지서비스사업 등에 비해서 뒤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투입되는 그만큼 지출을 한다면 그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되겠지만 이 4대강사업의 경우에는 그 혜택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자본투자적인 지출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 중 SOC 건설 예산은 모두 다 사라져야 한다는 어색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지난해 이 정부가 “100만 명 실업대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발생한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1년, 2년 이렇게 추정하면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다소 확대돼서 알려진 것이고, 또 사실 정부로서도 비정규직 통계에 관해서 또 경로추적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를 보강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위원장 김성순** 마무리를 좀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비정규직이라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손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규 위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지역 손범규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에게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학사학위 때, 대학 때 그렇습니다.

○**손범규 위원** 그렇다면 들어보신 일이 있을 텐데 ‘낙수효과’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낙수효과요?

○**손범규 위원** 예, 즉 대기업이 성장…… 우리나라같이 무역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원이 없고 이런 나라에서는 대기업 주도의 성장을 이룬 다음에, 그래서 대기업이 역할을 해서 성장을 이뤄 가지고 얻어진 결실 그것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듯이 그 대기업의 성장주도력의 효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까지 확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는 이것을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너무 편중한다 했으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으면 지금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서는 이 정도 되어서는 낙수효과에 따른 효과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나가야 함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효과에 힘입어서 고용 문제도, 특히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에 맞게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면서 실업률도 좀 떨어지면서 청년실업도 해소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냐, 대기업이 엄청난 자금을, 은행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성장의 혜택만 대기업이 다 누리고 낙수효과는 기대되고 있지 않지 않냐,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청년실업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고 만연히 그냥 늪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가능한데요.

우리의 고용 촉진을 책임지는 장관께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우선 현 정부가 친대기업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친기업을 표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업’이라 함은 비단 경영자뿐만 아니고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기업은 곧 친노사이고 그것은 곧 친일자리라는 뜻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실제로 그 이후 진행된 여러 가지 법인세율 개편 등에서도 사실은 중소기업 쪽에 훨씬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지원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에서 대기업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수출 신장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했고 중소기업은 훨씬 후행하는 그런 경기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일자리의 원천인데 그런 점 때문에 아직까지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구조적인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대기업은 사람을 뽑지 않고 정작 뽑아야 될 중소기업은 어렵고 해서 고용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에 관해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검토하고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취지를 유념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제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후보자께서 문제의 진단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잘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법인세율 개편의 문제에 있어서도 감세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 친기업이고 친일자리 창출이고 그렇게 정부가 기초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자감세였다, 부자들만의 정책이었다라는 이러한 시각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으면서…… 이제 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부의 감세라든가 친기업·친일자리 정책 이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 집권 후반기로 끝까지 가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경기침체와 실업에 만연되었던 이전 정권에서의 실망감을, 현정권에서도 한 번도 만족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또다시 그런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정권, 다른 정권으로 눈을 돌려 가지고 정권 재창출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가 있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이 이제 차근차근 발표되지 않겠나……

○**손범규 위원** 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보고 있고요.

○**손범규 위원**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말이지요, 요사이 들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 보도도 많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제가 말

숨드린 배경과 또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거 이런 것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결론을 낸다 그러면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공공부문에서는 3%의 의무고용을 미취업 청년에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의 의무고용 조항도 그것이 의무를 진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인 것에 불과해서 효력이 없다, 정부도 그래서 3% 미만으로 고용한다 이겁니다, 청년 미취업자를. 그러니 대기업이 나서겠느냐, 그러니 중소기업은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번에 취임해서 가지고, 청문회를 통과해서 가지고 취임을 하신다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취지를 아예 개정을 해서 의무화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권고조항의 상태라도 3%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 대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벨기에의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말 아무 신뢰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확실한 것은 장애인과 같은 그런 원천적 취약계층의 경우는 법정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청년층의 경우는 법정화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법이 자칫 법률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 만일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확실히 청년취업률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범규 위원** 우선 대기업, 아주 그냥 매머드급 대기업이라도 더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것은 꼭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특정 기업을 떠올리면서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손범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손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오후에 걸쳐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꼭 물어야겠다라고 하실 분 혹시 계신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분씩만 드리지요.

○**신영수 위원** 한 5분은 주셔야지요.

(「5분으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홍영표 위원** 굉장히 빨리 끝나는 겁니다, 다른 데 비하면.

○**위원장 김성순** 가급적이면 직접 후보자 검증과 관련되는 그런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5분 이내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서를……

차명진 위원님이 제일 먼저 드셨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번에 노조법을 13년만에 고치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한 소위 노조의 신뢰 문제입니다. 이것 잘 들어서야 됩니다.

원칙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감수해서 원칙대로 가는 것은 상당한 용기입니다. 이번에 노조 쪽에서 사실상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임자수를 줄이는 데 한국노총이건 민주노총이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결단이고 자기희생입니다.

자, 이런데 지금 문제가 두 가지 생겼어요. 원칙에 맞다, 그러나 문제가 두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 상급 노조에 파견돼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위노조에서 파견됐는데 단위노조의 전임자수가 보통 절반 내지 3분의 1로 줄어드는 마당에 상급 노조에 파견돼 있는 사람까지 급료를 줄 여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장관님께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 노조법을 고치면서 단위노조의 욕을 먹어 가면서 고치는 것을 허용한 분들에게 혹시 저는 장관님이 그런 현실을 생각해서 이 상급 노조 급료가 끊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장관님께서 잘 몰라서 그러셨는지 “원칙적으로 상급 노조에 대한 급료는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

니까 이 노조법을 만든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신뢰의…… 과학적으로 옳으나 틀리냐, 원칙에 맞느냐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에 관한 문제거든요. 전임 장관은 분명히 이 문제를 인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 상급노조에서……

정말 단위노조에서 숫자가 줄어들니까 상급노조에 파견을 하거나 급료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 왜? 상급노조가 필요하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이 안 일어나려면 ‘내가 전부 다 뺏은 좋은데 나는 그 돈 안 내겠다. 나는 파견 안 하겠다.’ 이래 버리면 상급노조 근거 자체가 희박해지는 것 아닙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으려고 했는데 장관님은 아까 ‘상급노조 파견은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아직 그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걸로 알고 그것은 단위노조에서 파견하는 형식으로는 되어 있는 겁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이 문제에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기금을 모으거나 일정기간 유예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것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정당성 자체를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 상급노조 파견을 그래서 우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상급단체 파견 근로시간면제 총량제를 하자, 각 단위사업장별로 3시간씩 해서 상급단체에 주든지 아니면 큰 데는 좀더 시간을 내서 상급단체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할당해서 상급단체에 계신 분들의 급료가 해결되도록 하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장차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장관님.

이 문제를 제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장관님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데 또 아까 오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검토하시겠다는데 이 문제는 두 달 동안 검토해 왔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지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작년 초부터 그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번 여러 합의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신뢰 외에 또 다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보다 노사 쪽에서 자율적인 해결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진 위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를 십분 헤아려서……

○차명진 위원 헤아리는 게 아니라 장관님,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현재대로 하고자 하는 것도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안 되겠다’ 얘기하시면 이것 큰일 났네, 이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십분 헤아려서 하여튼 검토를 원만하게 수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순 후보자께서는 큰일 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순서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그냥 추가질문 순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성 위원님한테 제가 우대를 해 드려서 이정선 위원님 지금 해 주시지요.

○이정선 위원 고맙습니다. 남성 위원들이 많이 계신 곳에 오니까 우대도 받습니다.

4대강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시 의원으로 있을 때 청계천 복원을 했습니다. 그때 청계천 복원이 되기 전에 서울시민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청계천이 가스로 가득 차서 이것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서울시장을 하셨던 분들이 감히 엄두를 못 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시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많은 검증 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셔서, 청계천 고가 다리를 허무는 것에서도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많이 대두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문제 없었습니다. 마치 그 다리가 두부 잘라지듯이 탁탁 잘라졌고, 청계천 주변에 있던 상가의 상인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지지로 돌아섰고

현재는 정말 서울시민들이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맑은 청계천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4대강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적은 홍수 대비나 갈수기의 대비 그런 것이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동안 우리가 방치해 놔던,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놔던 이런 퇴적물 같은 것을 당연히 우리가 새롭게 환경 전환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레저나 관광 이런 부분에 특정한 어떤 사업 유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이라든가 환경 그다음에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방증을 하는 것이 반대했던 많은 야당의 지자체장들의 후보들이 지자체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주민밀착형 정책을 점검하면서 주민들의 기대 그런 입장을 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현장을 죽다 나가 봤습니다. 주민들도 만나 뵈었고 주유소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노인정도 가보고 다 가서 만나봤는데 현장 구역에서는 전부 찬성입니다. 어떤 강 구역에 가면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하폭이 점점 넓어지고 잡초더미 있던 모래톱, 톱이 아니고 하중도 등이 이렇게 준설이 되면서 수량도 늘어나고 수질도 깨끗해지고, 눈으로 보니까 점점 찬성 여론이 증가하고 가을에 조경이 시작되면 저는 여러 번…… 지금 이미 찬성이 반대를 추월했습니다만 눈으로 보시게 되면 국민들이 찬성하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강들이 홍수 때와 갈수기 때에 유량 차이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안정화시켜서 지금의 한강처럼 물이 늘 찰랑찰랑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도록 하자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수생태계가 더 풍부해지고 더 안정이 된다, 수질도 깨끗해지고 수량도 많아지고 일석사조, 오조의 사업이다, 그래서 관광객도 그 지역에는 늘어나게 되고.

또 서민들께서는 골프를 치거나 헬스를 하거나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없는데 강변유역을 거닐고 자녀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하류에 가면 정말 수돗물을 저희

들이 그냥 마시기가 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생수를 사서 마실 수 없는 서민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국가의 의무고 도리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이 사업만큼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의견을 듣고 해야 되겠지만 갑론을박만 하며 시간을 보내면 언제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국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의결해 주셨고 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서 정부가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법원에서 이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취소할 것은 취소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한 게 수백 건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를 원안대로만 밀어붙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수백 건의 사업계획을 고치고 했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소통을 안 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소통 안 했습니다.’ 말씀 올렸는데 그러나 사실 현장도 가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또 어떤 분들께는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안 만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이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미흡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 이정선 위원 앞으로는 반대의견은 계속 수렴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반대의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 김성순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희덕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 76년부터 주식회사 삼화무역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지요?
-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76년 9월……
- 홍희덕 위원 본인이 작성한 인사기록카드를

보니까 76년 9월 2일부터 77년 10월 31일까지 삼화무역본부에서 4급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이는 78년 2월 9일부터 진행된 군복무와 시기가 겹치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군 입대하고 나서는 적만 있었고 그러니까 주식회사 삼화에 휴직을 했습니다.

○**홍희덕 위원** 휴직을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휴직을 한 상태에서 군 입대했다가 제가 군복무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가……

○**홍희덕 위원** 군복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휴직을 하셨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휴직을 했습니다.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이 조합의 조합원 수가 7만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해고된 조합원이 약 28명에 불과한데 전체 조합원 대비 0.04%에 불과한 해고자 때문에 10년간 합법노동조합으로 활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전교조의 말씀 일부, 말하자면 노조원 자격이 없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규약 자체를 고치도록 그렇게 교과부에서 아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노동조합의 규약은 특별한 단결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규약을 노동조합 스스로 자주적으로 이렇게 제정하는 부분에 너무나 정부가 법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여론이 비등합니다. 당사자들 얘기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 꼭 정부의 입장만 가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는 노동법 학자들의 견해

라든지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세를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유연성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노력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아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다 직접고용을 했었지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용역회사에 청소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맡기면서 이런 공공부문 정부기관에서마저 최저임금이 지켜지질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만큼은 거기에서 종사하는 청소 업무를 하고 계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어도 여기저기 않을 정도의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마 정부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또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 생각이 되는데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그것만큼은 실장으로 가신 전직 임태희 장관께서도 제 질의에 확답을 주셨습니다. 작년서부터 끊임없이 지적된 부분이고요, 그래야 노동부에 민간 사업장, 다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타당성이 생기는 거고. 정부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텐데 아마 예산 편성이……

○**홍희덕 위원** 아무리 예산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희덕 위원** 최저임금법 적용까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격을 봐서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하시기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취임하시면 실태부터 파악하시고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홍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홍영표** 위원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펼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친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친대기업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하나만 보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내고, 그 사람들이 아마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내수 중심의 중소 영세기업들은 법인세 내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법인세 감축해 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친대기업 정책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근의 8·15 광복절 사면을 보면 대기업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임원들이나 회장들은 이번에 또 많이 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자리 때문에 또 생존권 때문에 싸우다가 구속된 노동자들은 아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단 한번도 사면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친대기업 정책을 가지고 대기업들에 우대를 해 줘도 사실 일자리 이런 거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확산 효과도 없다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구속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면을 위해 노력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하나 묻고 싶고요, 나중에 모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후생복지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서 사실 일자리를 잃으면 우리는 굉장히 단기간 동안, 아마 최장 180일 동안의 실업수당 외에는 어떠한 사회적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한 5년까지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이럴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쌍용자동차 투쟁을 할 때다가 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다 40대, 50대 가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한 사람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자체가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도 아주 극렬한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MB 정부는 정말 아주 잔인하게 진압하고 징역을 보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아직 전혀 사면 조치도 없습니다. 그것과 연관 지어서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실업급여 제도를 좀더 개선해야 되고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나 또 영세상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수당 도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부분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4대 보험료 감면 등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순** 후보자께서 입장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구속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면은, 원래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제도를 좀더 확충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하는 문제, 특히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하고 실업수당을 또 도입하는 문제 등은 전반적인 재정 사정을 감안해야 되고, 이 경우에 또 사업주 등에 미치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총량적으로 흑시 줄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과 함께 또 장기 실업을 흑시 조장할 가능성이라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좋은 장점들과 이런 부작용, 또 전반적인 재정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4대 보험료 감면 역시 전반적인,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 드려야 되는데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동안 좀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요율 등이 감면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좀 추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바로 속 시원한 답변을 드

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조금 전에 손범규 위원님하고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초기에 경제정책을 선택적으로 놓고 판단할 때 결국 어려운 서민 근로자들 일자리 갖게 하고 생활 안정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대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복지로 나눠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나, 아니면 대기업들 세금 덜 걷게 하고 그것을 투자하게 해 가지고 더 많이 경영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일자리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나 그 둘 중에 후자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거기에 효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데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혜택만 받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쪽으로 역할을 제대로 안 했고 경제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고 제가 보기에, 저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의도는 처음에 찬성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타났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후보자님께서 고용노동부의 주요 핵심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노사 선진화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노사 선진화의 핵심과제는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까 인사말씀에서 드린 바와 같이 대립 갈등보다는 상생을 해야 되는데 상생을 하려면 서로 법치와 자치가 지켜져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것 외에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좀 거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거드는 것 중의 하나가 결국 이른바 좀 힘이 있는 부분과 힘이 없는 부분의 양극화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힘 있는 쪽에 좀 완충, 힘 없는 쪽을 좀 복돋우는 것, 넘치는 데는 약간 깎고 모자라는 데는 약간 채우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해진 위원** 제가 볼 때 같은 생각이실 수도 있는데 하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 폭력이

나 불법이나 그런 노사관계가 아니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상생하는 노사관계, 법을 지키는,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사관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잡아가는 것이 첫째고, 또 하나는 노동 유연성이 우리 정부의 주요한 과제였는데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고용을 또 안정시켜야 되는 그 두 난제를 조화시키는 것, 아까도 우리 고용노동부가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려고 하니까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서 진짜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뭔가 해결해 내지 않으면 노사 선진화라는 것은 진척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해고랄까요, 사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그것을 좀 막아야 되고, 어디든지 좀 유연하게 옮겨갈 수 있고 그런 것을 또 촉진하는 인력고용 서비스랄까요 그런 시장도 민간에서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만드는 데 정부가 좀 마중물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복합되어서 제가 너무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조해진 위원** 그 관계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약간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시간강사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직에 계셨으니까 시간강사 분들의 애로, 고충, 또 절망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비참하다고 할 정도의 자기비하적인 생활환경 이런 것 잘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조해진 위원** 그게 한 6만, 7만가량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되어 가지고 조금 혜택이, 큰 혜택은 아니지만 됐지만, 그분들이 본인들의 처지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많이 배우고 또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는데 본인들의 상황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사랑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질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논리를 가지고 있고 설득력과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의 여론 주도층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여론 주도층인데 이분들이 강단에 서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나, 기고를 통해서나 그들의 지식과 논리로 쏟아내는 시각이 반대한국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질 수 없는 나라로 보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큼니다. 아주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장관내정자께서 그전에 이분들의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재직 중에 내셨는데, 저는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비단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분들을 대학에서 활용하는 것으로만 봐서는 문제가 다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방안으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정말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협회, 단체 뭐 이런 쪽에 상당히 그게 많거든요. 시간강사는 아니지만 교육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상당히 부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로 팀을 좀 짜 가지고 전공에 맞추어서, 정치학 하시는 분은 통일 교육이라든지 또 경제학 하시는 분은 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맡기는 방법 등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 조금 숨통은 트일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이찬열입니다.

저는 4대강 얘기를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라 좀 속상해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이 4대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4대강사업이 성공이나, 실패나 여기에다 주안점을 두고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는 것은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한번에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 또 이 토목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그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성공 실패는 나중 문제이고, 특히 저는 한강팀장을 맡고 있는데,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에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보세요. 거기에 무슨 20~30m 보를 위해서 토목설비를 해 가지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홍수·갈수기 대책이라 그러는데 한강홍수통제본부장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4대강에 설치하는 보는 홍수조절용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강홍수통제본부장이 한 얘기고 오히려 지금의 보를 만듦으로 해서 홍수기에 수위가 10cm~20cm가 더 상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원 파악도 못 하고 무슨 홍수대책을 세우고 갈수기 대책을, 남한강에 언제 갈수기 때문에 농사 못 지은 적 있습니까? 그 유유히 흐르는 그 강에다가—보 가서 보세요, 얼마나 높은가—말도 안 되는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성공하냐 안 하냐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 때문에 지금 노동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노동부 고용창출예산 작년 예산에서 얼마나 깎였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답변 드릴까요?

○이찬열 위원 아니, 얼마나 깎였나만 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깎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깎였는지는……

○이찬열 위원 제가 봤을 때 고용창출예산이 1540억인가 깎였습니다. 분명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봤을 때 그 정도 깎였는데 그 예산이 이 4대강 때문에 다 깎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자리에서 ‘예산을 왜 못 받았나’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인가요? 2012년까지 예산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신규사업하지도 말고.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4대강사업 너무 ‘성공, 실패’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노동조합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노동조합법은 13년을 유예시킨 노동조합법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13년이 지나는 사이에 노동환경이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바뀐 노동환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3년을 유예시킨 법을 거의 여야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 제가 처리됐

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면 서도 그 처리되는 현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당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참 안타깝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노동계에 가서는 저는 아직은 그래도 법을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어렵게어렵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지만 내심 저는 여기 계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신다면 노동법 우리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사측이나 노동자나 노동조합법 바뀌고 나서 그 매뉴얼이 배포되는 그 순간에 서로가 다 불만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요, 항상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도 '왜 그냥 놔두면 우리끼리 잘 할 텐데 정부에서 간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대부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한강의……

○**이찬열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니,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강에 건설하는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는 모두 여주군에 있습니다. 2006년도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요. 수해가 나서 물이 넘쳤습니다.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충주호 수위를 놓고 충청북도와 경기도 쪽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방류를 하면 여주·이천이 넘치고……

○**이찬열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006년도 7월 달에 홍수가 났을 때 그게 넘을랑넘을랑말랑 해 가지고 월류한다고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열었지요? 뭘 못 열었느냐, 팔당댐을 못 열은 거예요. 거기다 보를 만들면 물이 더 못 흘러 내려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그 해에 충청북도 단양도 갔습니다. 두 차례 홍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충북 단양 쪽에 큰 피해를 봤고 한 번은 여주 쪽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면 보를 건설해서 홍수 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다 발표

를 하고 알고 있는데 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자료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에는 4대강이 유유히 흐르지 않는다, 쭉쭉쭉 흐르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대강 살리기 때문에 고용예산이 깎였다는 것은 제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저희가 그 주장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열 위원** 고용노동부가 이름까지 바꾸면서 예산은 깎였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깎였느냐 확인해 보고 얘기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2008년도에는 예산이 특별히 많이 늘었습니다. 추경도 있었고요. 그런데 2009년에는 경기 회복이 좀 진행되면서 2008년보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깎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찬열 위원** 앞으로 4대강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되어서 업무 추진할 때는.

○**위원장 김성순** 됐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감, 각오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와 향후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질책과 충고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위원님들의 질책, 지적 그리고 격려를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고용노동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혼신을 다해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시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당부 말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 성 순	손 범 규	신 영 수	이 미 경
이 범 관	이 영 애	이 정 선	이 찬 열
조 해 진	차 명 진	홍 영 표	홍 희 덕

○청가 위원(1인)

강 성 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병 길
전 문 위 원	원 창 희

○출석 공직후보자

박 재 완